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2016년 총영사관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는 김원태씨(보스톤 코리아 자료사진). 올해 등록자는 지난 대선에 비해 재외선거 유권자 6만여명이 줄었다

20 대선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6만명 감소, 왜 줄었나

'우편투표 제도' 미도입에 대한 실망감...외교부 "코로나19 영향" 재외유권자 규모, '수도권 만 18살 투표자, '춘천시 유권자와 비슷' '우편투표 등 도입하고, 732만 재외동포 지원예산 더 늘려야'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김경운 기자 = 2월 23~28일 전 세계 178개 공관에서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하겠다는 재외선거 유권자는 왜 6만명 이상 줄어들었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20대 대선 재외선거의 국외 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인 수가 잠정 23만1천314명(오전 7시 기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19대 대선 때인 30만197명보다 6만 명 이상 적은 인원이다.

유학생·단기체류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은 251만여 명이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선거 적령기에 해당하는 재외선거인을 200만 명 정도로 추산한다.

이를 바탕으로 20대 대선 재외선거인 유권자 등록률은 11.5%로 볼 수 있다.

재외동포 전문가들은 재외선거 유권자 수

감소 이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영향과 우편투표 도입 미실시 등을 꼽았다.

"코로나19로 귀국자 늘어" 재외선거 등록자 감소

김교식 세계한인회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취약지역에 사는 유학생과 단기 체류자 등 상당수 재외국민이 귀국해 재외선거 등록자 수를 떨어뜨렸다"고 분석했다.

전 세계 한인회를 대표하는 이 단체는 그동안 '대선 투표 50만 표 달성'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재외선거인 신청·등록 독려 활동을 해왔다.

김 총장은 "특히 관광업 등에 종사하는 아시아 지역 재외국민 중 상당수가 코로나19가 발생 후 생활고에 시달리" >>7면으로 계속

보스톤시, 백신증명 스마트폰 앱, 15일 사용가능

주정부의 백신기록인증서와는 달리 간편 정보의 정확성보다는 개인의 양심에 의존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보스톤시는 주정부의 백신기록 디지털 인증서와 달리 백신 기록을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백신 증명 앱을 선보인다.

주정부의 백신기록 디지털 인증서는 마이백스리코즈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매사추세츠 백신정보시스템에서 자신의 디지털 백신 기록을 다운로드 하게 된다. 그러나 비투게더(B Together)라 불리는 보스톤의 스마트폰 앱은 단순히 백신접종 장소에서 제공한 CDC의 백신 기록카드 사진을 보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스톤시의 백신 스마트폰 앱을 개발중인 매릴랜드 소재 GCOM의 수석제품책임자 라울 푸리 씨는 "이는 단순성과 편리성의 문제" 라고 말하고 "이 앱의 목적은 복잡하게 자신의 정보를 찾고 이를 이용" >>4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HAPPY NEW YEAR

근하신년

2022년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스톤 코리아는 새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더욱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 더욱 쉽고 편하게 보스톤코리아를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 더욱 여러분의 목소리를 반영하겠습니다.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Korea licensed
Muti -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bostonpremierrealty.com



서울대학교 동창회 줌으로 신년하례식 가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서울대학교 뉴잉글랜드 동창회(회장 김유경)는 지난 1월 8일 토요일 줌(zoom) 미팅으로 2022년 신년하례식을 가졌다. 노동완 총무의 진행으로 개최된 하례식에는 1958년 입학생부터 2009년 입학생에 이르는 다세대의 동문들이 참가하여 덕담과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는 소감을 나누며 선후배간의 우애를 다졌다. 하례식에서는 교가 합창, 서울대 홍보 동영상 감상, 노명호 미주 총동창회장의 신년사에 이어 산우회, 한미예술협회(Korean Cultural Society of Boston), KSEA(Korean-Americ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KABID(Korean American Bio Industry Council), 관

악회 청년모임 등 동문 단체장들의 2022년도 계획 소개가 있었다. 특히 올해에는 뉴잉글랜드 동창회 25주년을 맞아 기념문집을 발간할 예정이라며 김회장은 많은 동문들의 참여와 후원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동문회에 대한 바람, 소모임의 활성화에 대한 이니셔티브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팬데믹으로 위축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동창회와 동문 단체들은 작년에 이어 지역사회에 한국문화 알리기, 포럼 일정 등 활발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활동에 관심있는 동문들은 <https://snuane.org>의 알림과 소식 페이지에서 좀더 자세한 소식과 일정을 볼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H마트 한아름고국통신 설맞이 선물세트 할인 판매

2월 1일 설날 맞이 선물세트 500여가지 최대 50% 할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H마트의 한아름 고국통신 서비스가 2월 1일 설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고객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한아름 고국통신판매”는 500여가지 다양한 선물세트를 최대 50% 대폭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며 쿠폰 이벤트와 무료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고국통신판매는 미국에서 간편하게 결제하여 한국으로 선물을 보낼 수 있다는 큰 장점으로 고객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서비스다.

올해는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녹색 한우선물세트, 암소 한우만 취급하는 서경한우 선물세트, 초이스급 이상 LA갈비, 영광 범성포 굴비가 주요 인기 상품이다.

특히 이번 설날에는 고급 한정식 브랜드 경복궁의 간편식, 남녀노소에 인기 많은 망고 세트, 제주도 특산물 등을 신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온오프라인 다양한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사전 예약 시에



5% 추가할인 쿠폰을 사용할 수 있으며, 매장에서 \$180(180달러) 이상 주문 시 경기미 15LB(15 파운드) 한 포를 현장에서 증정하고 있다. 인기 건강식품, 건어물, 한우불고기, 스테이크 상품을 3개 주문할 시 추가적으로 1개를 무료 증정하고 있다.

“한아름 고국통신”은 한국은 라인 쇼핑몰의 복잡한 회원가입이나 인증 절차 없이 미국에서 미국 카드로 간편하게 결제하여 한국으

로 선물을 보낼 수 있다. H마트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주요 매장 및 전화로도 주문이 가능하다. 주문부터 배송까지 영업일 기준 서울 평균 3일, 지방 3~4일, 제주 및 산간 지역은 5일까지도 소요되어 연휴 전 안전한 배송을 위해 사전에 주문해야 한다.


주문은 H마트 웹사이트 (<https://gift.hmart.com/>)와 TOLL FREE 전화(1-800-648-0980)로 가능하다.

서울설렁탕


겨울 특선메뉴

사골 떡만두국

진한 사골 국물에 정성으로 빚은 만두가 들어간 든든한 식사로
추운 겨울을 포근하게 보내세요



Take out
Available
포장가능



서울설렁탕

SEOUL SOULONGTANG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MA 02134 Tel: 617-505-6771



형사법
상법/회사법
민사법
부동산/클로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코로나 예측모델 2주내 매스주 감염자 정점 찍고 하락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전문가들과 코로나바이러스 예측모델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는 이달 말까지 계속 코로나바이러스 증가세를 기록하고 이후 급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영향력있는 모델링 그룹의 최근 예측을 인용한 보스톤글로브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 감염자 수의 정점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병원 입원과 사망자는 정점이 지난 후에도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록펠러 재단 병리감시 센터 스카피노 디렉터는 “상황이 호전되기 전 더 나빠지는 상태” 이라고 말했다.

위싱턴대학 건강지수평가연구소와 CDC의 모델은 모두 감염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병원 입원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위싱턴대학 모델은 1월 22일 하루 신규확진자가 53,004명에 달해 지금의 두배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12일 주 보건부의 7일 평균 신

규확진자는 24,723명으로 집계됐다.

이 대학의 모델의 예측가운데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병원입원환자 급증이다. 1월말 병원입원환자는 5,882명에 달해 현재의 2배에 이른다는 예측이다. 현재는 2970명이 입원 중이다.

사망자도 현재 7일 평균 하루 50명에서 하루당 69명으로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단기적 감염자 수를 예측하는 CDC의 전망에 따르면 하루당 매사추세츠 병원입원환자의 수는 1월 25일 438명까지 증가한다. 지난 1월 4일 하루 병원 입원자는 313명이었다.

보스톤대학공중보건대학원 감염병리학과 매튜 파스 교수는 매사추세츠 감염자는 빠르면 1주 길면 1개월 안에 찾아들 것으로 예측했다.

파스 교수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단지 최선의 예측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할 뿐” 이라며 선부른 예측을

금했다.

그럼에도 그는 “오미크론은 아주 빠르게 확산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더이상 감염시킬 대상이 없어) 아주 빠르게 감소할 것” 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이 같은 경향은 사우스아프리카에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예를 들며 급격히 증가했다가 폭락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UC어바인의 앤드류 노이머 교수는 미국은 겨울이며 사우스아프리카는 여름이 한창이란 점을 지적하며 상황이 다르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오히려 케이스가 쉽게 감소하고 있지 않는 덴마크나 네델란드 같은 국가를 지적하며 오히려 매사추세츠는 이 같은 나라와 유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노이머 교수는 “사우스아프리카 모델을 따르지 덴마크 모델을 따를지는 아무도 모른다” 며 여지를 두었다.

매사추세츠에서 오미크론은 일



매사추세츠 한 병원의 코로나환자 병동의 모습

반적으로 백신접종자들에게 경미한 증상만을 보였다. 그러나 당뇨 또는 심장질환을 지닌 기저질환자 중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이 밀려들면서 병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베이커 주지사는 그동안 500명의 주 방위군을 긴급 투입해 병원의 넘쳐나는 환자들을 도왔으며 12일 500명을 추가로 소집해 인력지원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감염자 수가 폭증하고 입원환자가 넘쳐나지만 오미크론의 가벼운 증상으로 인해 사망자는 크게 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이머 교수는 “영국의 경우 감염자 수는 어마어마하지만 사망자는 지난 여름만큼 늘지 않고 있다” 며 “영국의 사례를 대입하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던 문으로 다시 퇴원할 가능성이 높다” 고 말했다.

hsb@bostonkorea.com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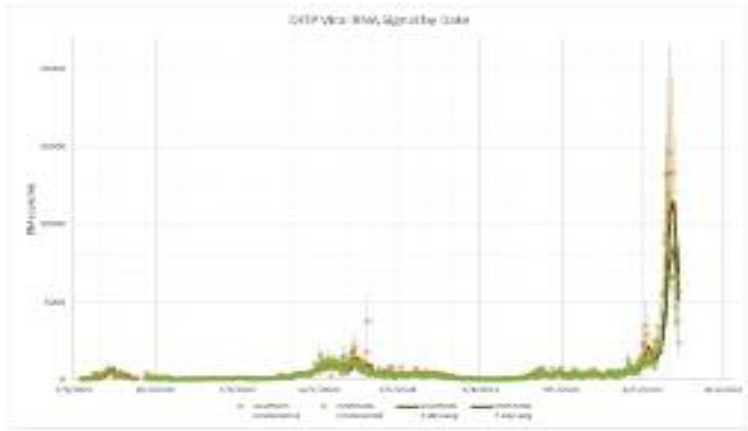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산 자가진단 코로나 테스트 키트 판매 합니다. 개당 \$50”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매사추세츠 하수도 코로나 검출수 대폭 하락

매사추세츠 코로나바이러스 폭증세 꺾이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지난 4주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던 그레이터보스톤 하수도 코로나바이러스 검출수가 급격히 하락했다. 이는 매사추세츠 코로나바이러스 폭증세가 10일 안팎으로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징조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매사추세츠수자원공사(MWRA)의 보스톤지역 남부 하수도 7일 평균 바이러스 검출량은 지난 주 밀리리터당 11,446 RNA에서 6,810 RNA로 급격히 하락했다. 북부지역 바이러스 검출 수도 지난 주 8,644 RNA에서 5,091 RNA로 하락했다.

일반적으로 하수도의 코로나바이

러스 검출량은 약 10여일 후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수의 증가와 상관관계를 이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이 같은 감소세가 계속되는 경우 매사추세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도 약 10여일 내에 최고치를 찍고 감소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스톤의 코로나바이러스 신규확진자 수는 최근 들어 연일 최고치를 기록해왔다. 이와 더불어 병원입원율 및 사망자도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감염자 수가 하강한다 하더라도 입원율과 사망률의 증가는 훨씬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ditor@bsotnkorea.com

보스톤시, 백신증명 스마트폰 앱, 15일 사용가능

▶▶ 1면에 이어서

하기 위해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하는데 있다” 고 말했다.

사실 주정부의 My Vax Records에서 백신정보센터의 기록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CDC의 백신접종 기록 카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자신의 정보 수정 요청을 위해 여러가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비투게더 앱은 애플과 구글 스토어에서 1월 15일부터 다운로드 가능하다. 이날부터 보스톤시는 실내 영업장소 이용시 백신 증명을 의무화하도록 하게 된다.

앱을 다운한 후 이용자들은 단순히 백신 접종시 받은 백신 접종 카드를 사진 찍어 앱에 저장하면 된다. 이 앱에 자녀들 또는 다른 가족 전체의 증명서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앱은 모든 기록을 자신의 양심에 따라 저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백신 기록이 사실인지 여부를 증명하지는 못한다. 반면 마이백스리코즈는 주정부가 인증하는 디지털 큐알 코드로 백신 기록이 100% 신뢰성을 갖게 된다.

한가지 주정부 백신 기록의 단점은 다른 사람의 디지털 기록을 자신의 폰에 담을 수 있다는 점이다. 주정부는 이 경우 개인의 신분증을 동시게 검사하므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주정부의 백신 디지털 증명서는 미국과 여러 다른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스마트 헬스카드(SMART Health Card) 기준에 근거하는 것이어서 추후 사용 범위가 좀더 넓을 수 있다.

비투게더 스마트폰 앱은 자신의 백신 카드 사진 대신에 주정부의 스마트 디지털 증서를 담을 수 있으므로 두가지 용도 모두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옆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김수정 Soojung Kim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락 Andrew Koak
앤젤라럼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지류업체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1
오후 5:30

곧 도착! 주차하고 갈게!!!

오빠 어디야? 난 다 왔어~

2
오후 5:28

**서로의 위치는 확인했지만
눈앞의 위험은 확인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보행 중 교통사고 60% 이상이 스마트폰 사용 중 발생합니다.

국민 김규연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



매사추세츠 백신 디지털 증서 발급 웹사이트 시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가 백신접종완료자들에게 디지털 백신 증명서 제공하는 백신 정보 웹사이트를 개설한다. 일부 다른 주들은 개인의 백신 접종 상태를 보여주는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매사추세츠 주는 웹사이트를 방문해 사람들이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이백스리코드(My Vax Records)라는 이 웹사이트에는 개인의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통해 주정부 공중보건 데이터베이스에서 백신접종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myvaxrecords.mass.gov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기입하고 보기를 신청하면 즉시 화면에 백신

정보가 나타나지 않고 문자 메시지로 결과를 통보한다. 때로는 자신의 정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https://myvaxrecords.mass.gov/pages/Request>에서 자신의 정보 수정을 요청해야 한다.

백신접종 자료는 문자 형태와 큐알코드로 나타나 있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스캔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록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백신 접종 날짜 그리고 접종받은 백신의 종류가 나타난다.

사용자들은 이 백신 기록을 화면 캡처해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거나 이를 프린트해서 주머니 또는 지갑에 넣고 다녀도 된다. 이 백신 기록은 애플 아이폰의 헬스 앱에 넣을 수 있

다. 그러나 주정부는 안드로이드폰에도 이 같은 기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특히 주정부는 이번 웹사이트 백신 기록 서비스가 백신 의무화로 가는 첫번째 단계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백신 의무화와 백신 기록 증명 사이에서 줄타기를 계속했다.

그러나 보스톤시는 1월 15일부터 모든 실내 영업장소에서는 백신증명을 제시하는 의무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주 차원의 의무화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대신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hsb@bostonkorea.com

정치인 집까지 찾아가는 반대시위, 인상 찌푸려

백신의무화 반대 시위대 아침 7시 우시장 집앞에서 데모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시 공무원의 백신접종 의무화를 지침에 반대하는 시위대들이 이른 아침 미셸 우시장 자택을 방문, 시위를 벌여 원성을 사고 있다.

12일 아침 7시 5명의 시위그룹이 로슬린데일에 위치한 미셸 우시장 집앞에 모여 확성기를 사용하여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아이들 동요를 크게 틀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아침 조깅을 하던 한 이웃 캘리 갈라파퍼 씨는 이들에게 “당신들이 우시장의 어린 아이들을 깨우고 있다”며 항의를 하고 “만약 시위를 하려면 살고 있는 집앞이 아닌 시장의 집앞을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여야 한다”고 이들에게 조언했다.


보스톤 시장의 집앞에서 시위를 벌인 것은 우 시장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블랙라이브스매터 시위대는 새벽 4시에 마틴 월시

전 보스톤 시장의 도체스터 자택에서 시위를 벌였었다. 또한 경찰 예산 삭감 시위대들도 월시 시장 자택에서 시위를 벌였었다.

찰리 베이커 주지사의 스왓스 캣자택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들어 주택, 기후변화 등의 이슈에 많은 반대시위가 벌어져 주택침입체포 등의 공권력 동원이 이루어졌다.


크리스 서누뉴 뉴햄프셔 주지사는 급기야 야외 취임식을 취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뉴햄프셔 주 마스크 의무화를 추진한 후 무장한 시위대들이 그의 집 뒷뜰에 나타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정치적 반대 시위는 시민의 권리이며 정치인들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표현의 자유는 모두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정치인들에게도 사생활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기도 하다.



피터 김 부동산


주택, 콘도 및 상업 건물 전문
 MA 전지역 (32개 지점 MA 전지역에 위치)



Peter Kim REALTOR®
508.904.4735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Commonwealth Real Estate

Direct line: 508.530.0125
 Mobile: 508.904.4735 (Text for Urgent Matters)
www.PeterKimRealtor.com





THE WORLD'S No.1 GINSENG BRAND
 CheongKwanJang

정관장

어흥! 호랑이 면역력 설에 챙기세요 정관장 면역력!

2022




행사기간: ~2월 6일까지

정관장 면역력 설날대잔치



홍삼정 240g
 1개 구입시 30g 증정
 3개 구입시 120g 증정



\$250 이상 구입시
 홍삼원골드 1박스 증정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집값내기 힘들세요, 모기지 지원프로그램 신청하세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팬데믹으로 모기지 납부가 어려운 주택 소유자들을 돕는 주택 소유지원기금(HAF)의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매사추세츠 주는 12월 말부터 시작했으며, 로드아일랜드는 1월부터 시작한다. 뉴햄프셔는 1월 시작 예정이다. 버몬트는 1월 21일 시작하고, 메인은 2월께 시작할 예정이다.

대부분 자격 조건은 비슷하지만 각 주마다 구체적인 자격조건 다르므로 꼭 지원 이전에 확인해 봐야 한다.

로드아일랜드 주택소유주 지원 기금 신청받아
로드아일랜드 주택소유주들 중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기 어려운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로드아일랜드 주정부와 의회는 10일 5천만달러 주택 소유주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주들의 모기지 또는 기타 주택관련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흡어시스템펀드로드아일랜드(HAF-RI) 프로그램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주들이 모기지를 제때 갚지 못하는 것을 막고, 주택차압, 유틸리티 및 난방 공급 중단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 평균 소득의 150%이하의 소득자(4인가족 기준 \$129,750)여야

하며 로드아일랜드 주에 거주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2020년 1월 21일 이후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야 하며 모기지 밸런스가 \$548,250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https://www.haf-ri.com/required-documents>에서 할 수 있다.

자격이 되는 소유주들은 최대 24개월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만불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지원은 모기지 연체금, 모기지 납부금, 원금 납부, 재산세, 콘도수료, 유틸리티, 모기지 보험, 또는 모기지 관련 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자들은 지원금은 모기지 회사, 유틸리티 등에 직접 보내지게 된다.

로드아일랜드 잭 리드 연방상원의원은 미 구제계획(American Rescue Plan) 1천만달러 연방 주택 소유주 지원펀드를 만들도록 제안했으며 이 법안은 지난 봄 통과됐으며 로드아일랜드는 5천만달러의 주택소유주 지원기금을 전달받았다.

리드 상원의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로드아일랜드 주민들은 “가능하면 빨리 펀드를 신청하라”고 밝혔다.

주정부는 각 커뮤니티 에이전시들이 지원 보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매사추세츠 주택지원기금 신청 받아

매사추세츠는 지난 12월부터 미 구제계획의 일환으로 통과된 주택 소유주지원기금(HAF) 신청을 받고 있다.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매사추세츠 주민들도 모기지 또는 기타 주택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매사추세츠주는 주택 소유자의 소득이 해당 타운 평균 소득 150%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주택이 주거주공간이어야 하며 최소한 3년 이상 모기지가 연체된 기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모기지의 규모도 점보론이어서는 안 된다.

매사추세츠 주택 소유주들은 자신의 신청 자격 여부를 <https://massmortgagehelp.org>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자격이 되는 경우 바로 이곳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뉴햄프셔 1월 초부터 시작
뉴햄프셔는 2022년 초부터 주택 소유주지원프로그램을 시작할 계획이다.

뉴햄프셔의 경우 소득이 해당 타운 평균소득 125% 또는 연방 평균 소득 100% 중 더 큰 금액 이하여야 하며 주거주이어야 한다. 팬데믹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https://haf.homehelpnh.org>에서 이메일을 등록해 신청이 시작되면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메인은 2월중 시작할 듯

NEED HELP WITH YOUR MORTGAGE?
Massachusetts Homeowner Assistance Fund is here.

ABOUT MASS HAF
The Massachusetts Homeowner Assistance Fund (Mass HAF) is available for homeowners who are behind on their mortgage payments because of the COVID-19 pandemic. The goal of HAF is to prevent foreclosure and displacement of eligible homeowners. Mass HAF is funded by the American Rescue Plan Act (ARPA).

AM I A HOMEOWNER AND BEHIND ON MY MORTGAGE? Do I qualify for Mass HAF?
You may qualify for Mass HAF if:
 ✓ You own and live in a single-family home, or a 2, 3, or 4-family property in Massachusetts.
 ✓ You are behind on your mortgage payments by at least 3 months.
 ✓ You or someone in your household had their income go down, or losing a spouse, going on disability, or a 20% decrease of the 2019 pandemic. This includes job loss, lower work hours, paying more for childcare, illness, or being unable to work because you had to take care of a family member.
 ✓ You meet the program's income limits (income limits are 150% of AUI - see website for more).

HOW CAN MASS HAF HELP ME?
If you are approved for Mass HAF, you will receive assistance to pay overdue mortgage payments. If you also have overdue payments on property taxes, insurance, or homeowners/condominium fees, you may be able to receive additional assistance.

WILL I RECEIVE THE MONEY DIRECTLY?
No. If you are approved, money will go directly to your mortgage loan servicer (the company that receives your mortgage payments). You will be informed about how much assistance was provided and how it was used.

WILL I NEED TO PAY THE MONEY BACK?
No. The assistance is a grant, not a loan. You will not have to pay the money back.

HOW DO I APPLY?
The application is online. Learn more and apply at www.massmortgagehelp.org. You can also complete a short online screener to see if you qualify.
 If you need help with your application, call (603) 893-2000, Monday - Friday, 9am - 5pm. You can also work with a non-profit housing counseling agency. A list of housing counseling agencies can be found on www.massmortgagehelp.org.

massmortgagehelp.org

메인 주는 각종 문제로 주택소유주 지원기금(HAF) 신청을 지난해 12월 20일 현재 약 2개월 후에나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조건은 논의 중에 있다. 신청 관련 이메일을 원하는 메인 주민들은 https://www.maine.gov/pfr/consumercredit/homeowner_assistance_fund/mailling-list.html에 신청하면 된다.

버몬트는 1월 21일부터 시작
버몬트는 1월 21일부터 주택소유주 지원프로그램을 시작한다.
버몬트는 주 평균소득 150% 이하, 주거주지 그리고 팬데믹으로 소득이 저하된 주민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https://vermonthap.vhfa.org/>에서 자격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editor@bostonkorea.com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20 대선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6만명 감소, 왜 줄었나

▶▶1면에 이어서

다 귀국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외교부가 발표한 '2021 재외동포 현황'을 보면 아시아 지역 재외국민 수는 2019년 59만2천441명에서 무려 17.39% 감소한 48만9천420명을 기록했다.

중남미는 10만3천617명에서 12.86% 줄어든 9만289명, 중동은 2만4천498명에서 24.98% 급감한 1만8천379명이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중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귀국 등으로 감소했다. 중국의 재외국민 수는 246만1천386명에서 4.51% 감소한 235만422명을 기록했다.

아시아, 중남미, 중동과 중국 지역을 합치면 23만3천432명의 재외국민이 줄어든 것이다.

그는 "이 인구 통계는 2020년 통계를 취합한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 귀국한 인원 등까지 합치면 올해 재외국민 수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외선거 신고·신청자 수가 직전 대선보다 줄어든 원인에 대해 "최근 전 세계를 휩쓰는 코로나19 상황과 연관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우편투표 도입' 기대감 사라진 것도 영향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외공관의 선거 업무가 중단돼 참정권 행사를 못한 재외국민들은 이번 대선에서 '우편투표 도입'에 대한 기대가 날달리 컸다.

김영근 세계한인네트워크 회장은 "올해 대선에서만큼은 우편투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재외국민들은 기대했는데, 정치권이 그 기대를 또 저버렸다"며 "그 실망감 때문에 대선에 대한 관심도 동반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서영교·설훈·김석기·이형석·이은주 등 여

야 의원들은 지난해 재외선거 편의를 위해 우편투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앞다퉈 발의했다. 그러나 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우편투표와 전자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재외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은 이번만은 아니다.

김 회장은 "정치인들은 2012년 재외선거가 처음 실시된 이후 계속해서 우편투표, 전자투표를 도입하겠다고 하면서 법안을 제출했지만, 번번이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며 "이번 대선 투표가 끝나고, 2년 뒤 총선이 다가오면 또 '희망 고문'을 하면서 개정법안을 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청와대, 외교부,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뛰어다니며 우편투표 도입을 호소한 심상만 세계한인회총연합회 회장도 "재외선거 편의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현저히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세계 10개 대륙 375명 전·현직 한인회장의 친필 서명 등을 담은 400쪽 분량의 '재외국민 참정권 실질적 보장 촉구 청원서'를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재외선거 유권자, '수도권 만 18세 유권자와 비슷

다만 대선에서 참정권을 행사하겠다는 재외선거 유권자가 23만 명을 넘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숫자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이는 2012년 재외선거가 처음 실시된 후 2017년 19대 대선 당시 약 30만 명에 이어 역대 선거 가운데 2번째로 많은 유권자수이다.

재외선거 유권자는 만 18살 유권자 53만여 명 가운데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이나,



강원도 춘천시의 유권자와 비슷한 규모이다

심 회장은 우편투표 도입 등 재외선거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재외국민을 위한 예산 확대를 제언했다.

그는 "만 18세 유권자들을 위한 후보자들의 구애가 이어지고, 올해 1조4천억 원이 넘는 춘천시의 예산을 고려하면 재외국민에 대한 지원도 더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750만 재외동포를 관장하는 재외동포재단의 올해 예산은 춘천시 예산의 4.72%에 불과한 707억 원이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지낸 이구홍 교포문제연구소 이사장은 "각국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촘촘한 한인 경제네트워크를 구축해 고국 발전에 기여하는 재외동포들을 위한 정부의 예산은 지금보다 훨씬 많아야 한다"며 "말로만 '21세기는 한민족 시대'를 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 지사 에서 민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 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판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에게 드리는 기본 서비스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어슈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로, 현 점수 및 경리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781.712.1706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Michelle Han CPA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아이들의 앞날을 막는 부모의 양육법 10가지

에이미 모린은 정신과의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작은 부모의 행동이 어린이에게 커다란 영향 아이들의 감정을 부인하거나 완벽을 기대하면 정신적 트라우마 도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대나 방치 등 심각한 문제들이 자녀들에게 장기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부모들의 심각한 수준의 잘못된 훈육이 아닌 미세한 잘못된 교육방식이나 분명하지 않지만 파괴적인 양육행동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간과한다.

정신과의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에이미 모린 박사는 일부 가정의 경우 밖에서 보기에는 괜찮지만 내부에서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가정들을 경험했다. 심각한 학대 때문이 아니라 잘 드러나지 않는 잘못된 부모의 양육이 아이들의 장래를 가로막는 경우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최근 모린 박사가 소개한 아이들의 장래를 망치는 10가지 부모의 양육법을 소개했다.

1. 아이들이 고통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 것

부모들이 자녀들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 고통을 겪게 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모든 어려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도 문제다.

불편함을 경험하지 않고 고통을 참아내지 못하는 아이들은 성년이 되어서 어려운 역경을 만나면 쉽게 무너진다.

2. 자녀들의 감정을 부정하는 것

“걱정 그만해라”, “울지 말라” 고 말하는 것은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이 나쁜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감정을 드러내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며 자신의 본래 감정을 부인하게 만든다. 결국 자라나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게 되거나 고통을 견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줄이려고 하게 된다.

3. 좋은 성적만을 칭찬하는 것
수학에서 100점을 맞았거나 게임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을 때만 칭찬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시험성적이 다른 무엇보다 최고라는 인식을 심어준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거나, 용감한 행동을 했을 때,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을 시도했을 때 칭찬하지 않고 오로지 좋은 결과만을 칭찬하는 것은 과정보다 결과를 이루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도록 만든다. 승자가 되기 위해 결국 거짓말을 하거나, 부정행위를 하거나 훔칠 가능성이 높아진다.

4. 자녀를 통해 대리만족을 하는 것

부모도 치료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가 있다. 그래서 자녀를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려 하는 경우가 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자신이 이

루지 못한 꿈을 이루도록 주장했을 때 자녀들은 강력한 자아의식이 없이 자라게 된다. 결정을 내릴 때마다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는 경우 자녀들은 부모에게 강한 분노를 느끼게 된다.

5. 완벽을 바라는 것
목표를 높이 세우는 것은 어린이들에 좋다. 이는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

그러나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기대에 부합할 수 없다는 좌절감을 안겨주게 된다. 어른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끼며 자라게 된다.

6. 두려움으로 말을 잘 들도록 협박하는 것

부모가 자녀를 쏘아보거나, 위협을 하거나, 때리거나, 창피함을 주게 해서 말을 듣도록 어린이를 강요하는 것은 항상 부작용을 산출한다.

추후 아이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신념에서 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위협의 두려움에 의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 결국 자녀들에게 건 강한 도덕적인 지침계가 없는 어른이 되도록 만든다.

7. 자녀들의 사랑을 독차지 하려는 것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고있던 이혼을 해서 동시에 자녀들을 양육하던 일부 부모는 자신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있다.



아이들이 좋아하면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자녀를 잃게 된다. 자라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상대방을 조정하려 하게 된다.

8. 죄책감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해서 장난감을 사고 먹을 것을 사는지 자꾸 일깨우려 하면서 사랑한다면 좀더 말을 잘 들으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 아이들의 죄책감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자녀들은 시험 답안지를 보여달라거나 성행위를 요구하는 친구들이 이 같은 죄책감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쉬운 먹이감이 될 수 있다. 또는 자라나서 이 같은 죄책감의 굴레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기로 사용하는 패턴을 낼 수 있다.

9. 자녀들에게 부모의 역할을 맡기는 것

성인으로서 자신감이 부족하게

나 자신의 내린 결정에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 자녀들이 결정에 참여하도록 의존하는 경우가 있다.

자녀에게 능력 이상의 더 많은 정보와 책임을 지우는 것은 그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가정을 이끄는 데 충분하게 갖추지 않는 사람처럼 느끼도록 만들게 된다. 결과적으로 안전감을 느끼기 위해 주변의 모든 것을 끊임없이 통제하게 된다.

10. 정서적 교감을 하지 않는 것
상투적인 문구이지만 선물보다는 함께하는 것(need your presence more than presents)이 필요하다.

항상 자신의 전화기만을 들여다보거나 아이들의 정서를 돌보기에 너무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은 부모들은 아이들의 정서적 발달을 잘 도울 수 없다. 이처럼 정서적으로 아이들과 함께하지 않는 부모와 자라난 아이들은 건강하고 의미있는 인간관계를 맺기 어려워한다.

hsb@bostonkorea.com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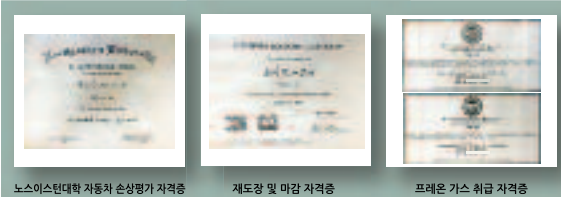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리페어 워크/바디 워크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노스이스턴대학 자동차 손상평가 자격증

제조장 및 마감 자격증

프래온 가스 취급 자격증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형제 떡집

모든 종류 떡 주문 가능!



영업 시간


딜리버리: 상황에 따라 결정됨
픽업: 상황에 따라 결정됨
주문: 일주일 내내

CEL: 978.343.6080

CEL: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요가송의 5분요가

유튜브 검색창에  요가 읽어주는 여자 hayeon

운동하기 싫은 날엔 이것만!!

손가락 까딱하기 싫은 날있죠? 매트 펴고 운동하기는 더더욱 귀찮고.

여성분들은 생리기간때 특히 격한 운동하기 부담스러운데요, 오늘은 몸 컨디션 저조할 때, 운동하기 싫은 날 따라하기 좋은 고관절 스트레칭 동작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허리 통증, 골반통증, 생리통 완화에도 도움되고 날씬한 하체를 만드는 데도 효과 만점인 '개구리 자세'를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좀더 다양한 하체 스트레칭 동작들을 영상과 함께 따라하고 싶다면?

유튜브 검색창에서 '요가 읽어주는 여자 hayeon' 을 검색하신 후 최근 영상에서 '힙 스트레칭' 편을 찾아 영상 따라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설정도 꼭 해주세요. 1월 한달동안 1일요가 '누뜨자마자 요가' 챌린지 중이니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부터 남은 한달동안 꾸준히 함께 해주세요!

Frog Pose (개구리 자세) 3단계로 배우기
 STEP 1. 매트나 침대 위에서 무릎을 바깥으로 멀리 보내고 손으로 바닥을 짚어줍니다.
 STEP 2. 매트 위에서 할 경우 무릎 안이 아플 수 있으니 매트를 접거나 담요를 밑에 받쳐 주고 엉덩이와 무릎을 같은 선상에 놓고 진행합니다.
 STEP 3. 두 무릎을 90도로 접은 상태에서 발꿈치를 안으로, 발가락을 바깥으로 보냅니다.



이때 무릎과 발목을 일직선 유지할 것.
 STEP 4. 스텝 3이 어려우신 분들은 사진처럼 무릎만 벌리고 두 발은 뒤에서 모아주셔도 됩니다.
 STEP 5. 팔꿈치를 내리고 호흡과 함께 허벅지 안쪽의 자극을 좀더 깊게 느껴줍니다.
 STEP 6. 마지막으로 손을 좌, 우로 보내 옆구리를 늘려줍니다. 시선은 자연스레 어깨 뒷편을 바라봅니다.

오늘 동작은 간단해 보이지만, 2분 정도 홀딩하면 안벽지의 스트레칭 효과를 제대로 느낄 수 있고, 평소 옆으로 다리찢기가 잘 되지



않았던 분들에게는 다리 유연성 향상을 가져오는 좋은 워업 동작이 될 거예요.
 평소 하체 비만으로 고민중이시거나, 생리통이나 허리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강력 추천합니다!

유튜브도 좋지만 새해에는 라이브로 선생님과 소통하며 직접 자세 교정도 받고 싶다면?
 하연샘과 함께 하는 매주 라이브 ZOOM 요가 & 필라테스
 온라인 라이브 ZOOM 요가 & 필라테스 클래스의 장점
 1.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단기간 '체중감량'

은 물론, 근력 향상, 유연성 강화, 체형 교정의 효과

2. 꾸준한 회원관리로 지속적인 운동루틴을 생활화하도록 격려
3. 모니터를 통한 실시간 자세교정 (1:1 개인 레슨과 그룹수업 모두 신청 가능)

'기적의 다이어트 요가와 필라테스' 수업 1회 무료체험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 아이디 yogafullnesslife 로 본인 이메일 주소와 함께 신청해주세요.



송하연, 요가치처/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채널 바로가기 <https://bit.ly/3w9ks4u>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lness.life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향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HAPPY NEW YEAR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에
다시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 새해에는 임인년, 흑호랑이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한해가 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일이
풍성한 결실로 맺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2년 새해에도 차별화된 전문성과 노하우,
그리고 최고의 서비스로 부동산 매매/임대/투자
관련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이슨 전 드림



Jason Jeon

Vice President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COMPASS



뱅크오브아메리카 초과인출수수료 인하

5월부터 현행 \$35에서 \$12불로 다른 은행들은 이미 대폭 낮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6천3백만 고객들에게 원성을 샀던 초과인출수수료(overdraft fees)를 대폭 낮춘다.

BOA는 5월부터 현재 초과인출당 \$35이던 수수료를 \$10로 낮춘다. 또한 초과인출을 방지하기 위해 연결해둔 다른 계좌에서 이체되는 경우 부과했던 \$12의 이체수수료 또한 없앤다.

당장 2월부터는 체크가 바운스났을 때 부과하던 잔고부족 수수료를

없애고 잔액이 모자랄 때 현금인출이 가능하지 않도록 하게 된다.

일부 고객은 초과인출수수료를 선호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고객들에게는 가장 불만을 표시하는 은행 서비스관행이기도 하다. 최근들어 은행감독기관들도 은행의 초과인출관행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소비자재정보호국의 로히트 초프라 국장은 은행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 초과인출수수료에 탐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화감사원장 대행 마이클 수는 이 같은 수수료가 빈곤한 소비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BOA의 수수료 삭감은 대형 은행으로서 가장 적극적인 조치이지만 이미 소규모 은행들은 수수료를 완전히 제거하기도 했다. 케이탈원과 앨리 파이낸셜은 지난해에 이를 없앴다.

JP모건체이스는 고객들에게 하루 동안 여유를 더 주어 밸런스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 은행업계는 초과인출 잔고부족수수료 부과로 2019년 한해 동안 154억7천만달러를 거둬들였다. 이중에 JP모건체이스와 웰스파코 그리고 BOA가 전체 수수료의 44%를 차지했다.

hsb@bostonkorea.com



20대 대선 재외선거인 등록 23만여명... 19대 대비 6만명 적어

아시아대륙 11만2천여명 이어 미주·유럽·중동·아프리카 순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2월 23~28일 전 세계 178개 공관에서 치러지는 20대 대선 재외선거에 23만여 명의 유권자가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외선거 신고·신청인 수는 총 23만1천247명이다.

이중 유학생이나 기업 주재원 등 해외에 단기 체류하는 국외 부재자는 19만9천897명, 현지 국가에 정착해 사는 재외국민(영주권자 포함)은 8천848명이다.

여기에 영구명부에 들어 있는 재외유권자 2만3천310명을 합치면 재외선거 신고·신청인 수가 된다.

대륙별 등록 현황을 보면 아시아대륙이 11만2천62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주 7만6천318명, 유

럽·러시아·독립국가연합(CIS) 3만2천847명, 중동 6천883명, 아프리카 2천573명 순이었다.

외교부 '2021 재외동포현황'에 따르면 유학생·단기체류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은 251만1천521명이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선거적령기에 해당하는 재외선거인을 200만명 정도로 추산한다.

이를 바탕으로 20대 대선 재외선거인 유권자 등록률은 11.5%로 볼 수 있다.

20대 대선 재외선거 신고·신청인 수(23만1천247명)는 19대 대선 때보다 6만명 이상 적다.

19대 대선 당시 재외선거인은 29만4천 명이 등록했고, 실제 투표에는 22만여 명이 참여했다.

ghwang@yna.co.kr

보스톤코리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하기

보스톤코리아를 핸드폰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두고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아이폰

- 1 아이폰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 밑부분에 <저장하기> 버튼이 형성됩니다.
- 3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하기 화면을 위로 끌어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4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에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안드로이드폰

- 1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 세로 점 세계를 터치합니다.
- 3 우측에 열리는 메뉴에서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 4 바로가기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오미크론은 전파력을 강하지만 증세는 비교적 경미하다는 가정과 연구결과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미크론, 델타 대비 입원을 절반 ...사망률도 91% 낮아

코로나19 환자 7만명 분석...앞선 연구 결과와 상통 WHO "오미크론, 백신 미접종·고령·기저질환 환자에 위험"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확진자의 입원율과 중증화율, 사망률이 모두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2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CNBC 등에 따르면 미 의료기관 카이저 퍼머넌트 서던 캘리포니아와 캘리포니아대학교(UC) 버클리캠퍼스 연구진 등이 참여한 연구에서 오미크론이 델타에 비해 확진자의 중증화율은 74%, 사망률은 91% 각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할 가능성은 52% 낮았다. 또 입원할 경우 그 기간은 사흘가량 짧

았다.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환자 중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사람은 없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5만2천여명의 오미크론 환자와 1만7천명의 델타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분석을 토대로 했다. 이 연구는 아직 동료 평가를 거치지 않은 상태다.

연구진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중에서 중증이 적은 것은 백신 접종 여부나 코로나19 확진 이력 유무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분명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보다

전파력은 강해도 증상은 경미하다는 앞선 연구 결과를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지난달 남아공 국립전염병연구소(NICD)는 오미크론 감염자의 입원율은 델타 등 다른 변이에 감염된 환자보다 약 80% 낮았다고 발표했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ICL) 연구진도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될 경우 하루 이상 입원해야 할 가능성이 델타 감염보다 40~45% 적다는 분석 결과를 내었다.

다만 세계보건기구(WHO)는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고령, 기저질환을 지닌 사람에게 오미크론 변이는 여전히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마이클 라이언 WHO 비상대응팀장은 전날 생중계로 진행된 Q&A 세션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모든 사람에게 있어 대체로 중증화율이 낮다는 점은 확실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우"라며 "오미크론 변이는 여전히 백신 미접종자의 생명과

건강을 매우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마리아 밴커코브 WHO 코로나19 기술팀장도 오미크론 변이로 사망하는 확진자 비율은 비교적 낮지만 고령자나 기저질환자에게는 심각한 건강상 위협을 초래한다고 전했다.

firstcircle@yna.co.kr

미국인 암 사망률, 30년새 3분의1로 하락

(서울=연합뉴스) 현영경 기자 = 미국인의 암 사망률이 30년 전보다 32%가량 툭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진단, 치료법 개선, 흡연자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암학회(ACS)는 12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2019년 미국인의 암 사망률이 지난 1991년에 비해 32%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2019년 당시 미국인의 암 사망률은 인구 10만명 당 215.1명 수준이었는데 28년 뒤인 2019년에는 인구 10만명당 146명으로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이는 이 기간 암으로 사망한 미국인이 350만 명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2015~2019년에는 연간 약 2%씩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ACS는 "암 사망률 하락에 속도가 붙은 것은 예방과 검사, 조기 진단, 치료의 힘과 함께 '암 없는 세상'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우리의 전체적인 잠재력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암 사망률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종 등에서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ACS는 보고했다.

실제로 거의 모든 종류의 암에서 흑인의 생존율은 백인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령, 흑인 여성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백인보다 4%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백인보다 41% 높았다.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 가운데 하나인 간암의 경우 아메리칸 원주민과 알래스카 원주민이 미국 내 다른 인종에 비해 걸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ACS는 이 같은 차이가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인종주의와 차별적 관행에서 비롯된 재산, 교육 수준, 전반적인 생활 수준에서의 불평등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ACS는 "이 같은 결과는 대체로 폐암과 흡연과 연관된 다른 암을 초래하는 흡연자 숫자가 감소한 덕분"이라고 밝혔다. ACS에 따르면, 폐암은 다른 암보다 더 많은 사망으로 이어진다.

ACS는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더 많은 사람이 조기 단계에서 폐암 진단을 받고, 그 결과 더 오래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ACS는 또한 암으로 인한 사망률 하락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1990년대에는 사망률이 매년 1%씩 떨어진 반면,

신신마트 당일배송

배달 서비스

EXPRESS DELIVERY

각종 고기와 반찬, 쌀, 라면, 야채, 과자 뿐만 아니라 신선한 생선회(Mr. Sushi) 등을 12시 이전에 주문하시면 안전하게 당일 배송해 드립니다.
\$100불 이상 / 배송비 10불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은 Free Delivery 해드립니다.

가격과 품질에 정직합니다

정성들여 만든 신신 스페셜

- 얼큰한 해물 짬뽕국물 (\$7.99)
- 순두부 (\$7.99)
- 육개장 (\$9.99)
- 싱싱한 홈메이드 신신만두 (\$25.00)
(고기만두, 김치만두)

싱싱한 스시, 사시미 배달
즉석 김밥, 홈메이드 만두 등
당일 배송 가능

ALL 유기농 늘푸른 농장

- 한국포도 \$19.99/pack, \$36.00/box
- 메주콩, 검정콩 \$29.99/5LB
- 배즙, 포도즙, 대추즙 \$29.99/25packs
- 마른대추 \$29.99/1bag
- 고춧가루 \$69.99/3.8LB

신신마트) 978.686.0813 (매장)

781.308.2073 (줄리 안), 781.308.2072 (다니엘 안)

케이타링 문의

한식, 일식, 중식 케이타링 (보스톤 4성급 호텔에 납품하는 허가된 등록업체입니다)
문의 781.308.2073 (줄리 안)



연준은 인플레이션의 고삐를 죄기 위해 올해 4번 이자율을 인상할 계획이다.

물가 고공행진에 연준 '연내 4회 금리인상' 힘 받는다

블러드 연은 총재 4회 가능성 언급...시장에서도 같은 전망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마지막 달에도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물가 상승 압박이 거세짐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기준금리 인상을 비롯해 좀 더 공격적인 통화긴축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물가 상승이 1980년대식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번지지 않을 것이며 올해 안으로 상승세가 누그러질 것이라 전망도 적지 않다. ◇ 지난해 12월 물가 상승률, 39년 만의 최고 수준 12일(현지시간)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

(CPI)가 전년 동월보다 7.0% 상승했다. 이는 1982년 6월(7.1%) 이후 39년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이다. 지난해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상승일로의 모습을 보였다. 1월만 해도 1.4%에 불과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월(4.2%)과 5월(5.0%)에 4%대와 5%대를 연이어 넘어섰다.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다가 10월 6.2%, 11월 6.8%로 재차 레벨을 올렸고 결국 마지막 달에 7%대를 기록했다. 수요와 공급 측면의 요인 모두 물가 상승을 부채질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에서 미국 경제가 회복하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했다. 여기엔 미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덕분에 늘어난 미 가계의 저축이 한몫했다. 또 여행, 항공, 호텔 등 서비스업이 코로나19로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소비 수요가 상품 쪽으로 쏠리면서 상품의 물가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공급 측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 인력의 공장 가동에 차질이 빚어지고 주요 항만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해 상품과 부품, 원자재의 공급이 수요를 맞추지 못한 점이 물가

상승 요인이 됐다. 투자자문사 '플란트 모런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의 짐 베어드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세계 경제의 불균형 성장으로 소비(미국)와 공급(세계)의 불균형이 발생했다며 이런 불균형이 해소되면 가격 상승 압력이 완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1980년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달라" 지난해 하반기 물가가 1980년대에 비견될 만한 수준으로 올랐으나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진단했다. 지금은 물가가 상승 추세에 있지 만 당시는 하락 추세였다는 것이다. WSJ에 따르면 1970년대 후반 이란 혁명의 여파가 국제 유가가 치솟으며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1980년에 14.8%를 기록했다.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유명한 당시 폴 볼커 연준 의장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려 1981년엔 미국의 기준금리가 무려 19%에 달했다. 연준의 이런 노력은 여러 부작용을 낳았지만 물가가 내리기 시작했고 이후 40년간 한 자릿수대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미시간대가 조사·발표하는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로 코로나19 대확산 이전 수준에 머무는 점도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벌어지지 않을 것 이란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5% 이상을 웃돌았다. TD시큐리티 증권사의 짐 오설리번 수석연구원은 "1970년대 연준은 신뢰를 잃었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급등했다"며 이와 대조적으로 지금은 그때보다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이날 물가 지표 발표에도 오히려 하락했는

데, 이는 투자자들이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WSJ은 설명했다. ◇ 연준 4회 인상 전망 탄력...보유 자산 축소 시기도 앞당겨지나 그럼에도 당장의 높은 인플레이션은 물가 관리 임무를 맡은 연준을 압박하고 있다. 통화 긴축으로 기어를 바꾼 연준 관계자들은 최근 들어 점점 긴축의 강도를 높이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이날 WSJ과 인터뷰에서 "3월에 첫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며 "아마 올해 4회 금리 인상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연준이 지난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후 공개한 점도표로 3차례 금리 인상을 시사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언급이다. 사실 4회 인상 전망은 시장에서 점점 커지고 있었다. 골드만삭스가 지난 9월 올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횟수를 종전 3회에서 4회로 올린 데 이어 JP모건체이스, 도이체뱅크도 4회 인상 전망 대열에 동참했다. 또한 3월 인상설이 굳어지는 모양새다. 앞서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와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3월 인상 개시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블러드 연은 총재는 아울러 금리 인상과 함께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도 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1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보유자산 축소가 올 하반기에 시작될 수 있다고 말한 것보다 더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성향)이다. firstcircle@yna.co.kr

코로나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건강이 당신의 가족을 지킵니다

보스톤 권리아

다자대결서 이재명 37% · 윤석열 28% · 안철수 14% · 심상정 3%

지지이유는 추 '개인 자질', 尹 '정권교체', 安 '다른 후보 싫어서'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다자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오차 범위 밖 우세를 보였다.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두자릿수 지지율로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대선 일정을 전면 중단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큰 변화가 없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4차 가상대결에서 이 후보는 37%, 윤 후보는 28%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지난 3~5일 진행한 직전 조사보다 이 후보는 1%포인트 올랐고, 윤 후보는 그대로다. 두 후보의 격차는 9%포인트다.

최근 일부 다른 여론조사의 다자대결에서 당 내홍을 봉합한 윤 후보가 반등하면서 이 후보와 박빙의 접전을 벌인다는 조사결과도 나왔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밖 격차를 보였다.

안 후보의 지지율은 14%로 전주 대비 2%포인트 상승했다.

심 후보는 1%포인트 오른 3%로 집계됐다.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른다고 답한 '태도 유보'는 17%로 전주 대비 3%포인트 감소했다.

올해 선거에서 주목받는 세대인 18~29세에서는 이 후보와 윤 후보

지지율이 각각 21%로 같았고, 안 후보가 16%로 나타났다. '태도 유보'는 33%에 달했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8%가 이 후보를, 27%가 윤 후보를 뽑았다.

이 후보 지지층은 '후보 개인의 자질과 능력'(43%)을, 윤 후보 지지층은 '정권교체'(70%)를 지지 이유로 들었다. 안 후보 지지층은 '다른 후보가 되는 것이 싫어서'(33%)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응답자의 70%는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고 했으며, 29%는 바꿀 수도 있다고 했다.

이 후보 지지층의 81%, 윤 후보의 74%, 안 후보의 43%, 심 후보의 33%가 계속 지지 의사를 밝혔다.

경제 정책을 가장 잘할 것으로 생각되는 후보는 이 후보(43%), 윤 후보(18%), 안 후보(15%), 심 후보(2%) 등 순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 50%로 긍정적(44%)보다 높았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5%, 국민의힘 30%, 국민의당 8%, 정의당 4%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29.3%다.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bluekey@yna.co.kr



이재명 - 윤석열 - 심상정 - 안철수. 한국의 대선 후보들

경찰, 변호사비 대납의혹 제보자 심장비대로 대동맥 파열 사망 추정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한 이모(54·사망) 씨를 부검한 경찰은 타살 및 극단적 선택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발표했다.

서울경찰청은 13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구두소견을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 시신 전반에서 시인에 이질만한 특이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국과수 부검의 구두 소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동맥 박리 및 파열은 주로 고령, 고혈압, 동맥경화 등 기저질환에 의해 발생 가능한 심장질환"이라며 "(이씨는) 중증도 이상의 관상동맥 경화 증세가 있었고 심장이 보통 사람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심장비대증 현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씨가 발견 당시 수건을 입에 물고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수건은 전혀 없었다"며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됐다"고 말했다.

시신 주변에 피와 약봉지가 발견됐다는 내용에 대해선 "시신이 부패하면 몸속에서 부패액이 흘러나온다"면서 "약봉지는 주변에 있었지만 무슨 병인지는 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이씨가 평소 내원한 기록에 대해선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고 있고 수사에 참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유족이 이씨에게 지병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주변인 중에는 몸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JAN. 14th - JAN. 20th, 2022

H 마트와 함께 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몸의 거리는 넓히고, 마음의 거리는 좁혀야 할 시간. H 마트 고객분들과 직원분들의 안전을 위해 6피트 안전 거리를 확보해주세요!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ID : @hmart_ma

Join the H Mart Social Distancing Campaign, to help slow down the spread of COVID-19 for you and our H Mart family. Keeping 6 feet apart will bring us together again.



White Cabbage 양배추 LB \$0.99	Israel Fuyu Persimmon 이스라엘 단감 BOX \$9.99	Kabocha 단호박 LB \$0.99	Navel Orange 네이블 오렌지 SIZE 36 S/EA 3 FOR \$3.99	Washington Fuji Apple 워싱턴 후지 사과 PREMIUM QUALITY/LB \$1.49
Bagged Carrot 백 당근 2LB/BAG \$0.99	House Cucumber 하우스 오이 EA \$0.99	Idaho Potato 아이다호 감자 LB \$0.79	Sweet Potato 코이모 고구마 LB \$2.49	SOONYEOWON Tofu 수녀원 두부 SOFT/FIRM/SILKEN 16 OZ/PKG \$1.29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U.S.D.A. CHOICE Fresh Beef Top Blade Steak 생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10.99	U.S.D.A. CHOICE Fresh Beef Chuck Eye Roll Steak 생 소 목등심 스테이크 LB \$9.99
Fresh Bone-in Beef Shank 생 뼈있는 소 아롱사태 LB \$5.99	Fresh Pork CT Butt 생 돼지 목살 (수육용) CHUNK/LB \$6.99
Fresh Boneless Chicken Thigh 생 뼈없는 닭 사태 LB \$2.99	Marinated Pork Single Belly 양념 삼겹살 SLICED/LB \$6.99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CHAMBADA Masan Style Steamed Monkfish 참바다 마산식 아귀찜 1.52 LB \$12.99	SUHYUP Dried Anchovy (S) 수협 신선한 멸치 이야기 (지리용) PRODUCT OF KOREA 10.58 OZ \$13.99
Wild Caught LOUISIANA SHRIMP 루이지애나 자연산 왕새우 WILD CAUGHT/ SIZE 10-15 LB \$7.99	Frozen Mackerel Pike 냉동 공치 LB \$3.99
SUHYUP Frozen Sandfish 수협 냉동 도루묵 LB \$7.99	Salmon Steak 연어 스테이크 LB \$7.99

SMART CARD MEMBER ONLY

H MART SMART CARD ONLY KYONG GI MI Medium Grain White Rice 경기미 40 LB \$34.99	H MART SMART CARD ONLY KADOYA Pure Sesame Oil 가도야 참기름 56 FL OZ \$18.99
H MART SMART CARD ONLY DONGSUH Maxim Instant Coffee Mix 동서 맥심 커피믹스 ORIGINAL/MOCHA GOLD 100 STICKS/PKG \$14.99	H MART SMART CARD ONLY HAIO Yuza Tea with Honey 해오름 유자차 2.2 LB \$5.99

NISHIKI Medium Grain Rice 니시끼 쌀 15 LB \$23.99	I'M E Minsaeng Ramen Instant Noodle I'M E 민생라면 4.05 OZ X 5 EA/PKG 2 \$5.00 FOR	HOUSE FOODS Vermont Curry 하우스 버몬트 카레 MILD/MED. HOT/HOT - 8.11 OZ \$2.99	HANSANG Seasoned Small Octopus 한상 열쌍 추꾸미 1.43 LB \$16.99	NIPPONHAM Karaage Chicken 니폰햄 카라이게 치킨 12 OZ \$5.99
Q1 Homemade Sweet Korean Pan Cake Mix 큐원 홈메이드 찰떡믹스 ORIGINAL 19.4 OZ \$3.99	PULMUONE Vietnamese Style Pho Noodle Soup 풀무원 베트남 쌀국수 11.2 OZ \$4.99	HAIOREUM GOMPYO Wheat Flour 해오름 곰표 중력 밀가루 5.5 LB \$3.99	ARIZONA FARM Honey Powder 아리조나 팜 허니 파우더 1 LB \$1.99	DONGWON Canned Tuna 동원참치 라이트 스탠다드 LIGHT STANDARD 5.29 OZ X 4 CANS /PKG \$8.99
HAITAI Premium Butter Cookie 해태 버터링 10.65 OZ \$3.99	ORION Choco Pie 오리온 초코파이 16.5 OZ \$3.99	MASKRO KF 94 Disposable Face Mask 마스크로 KF 94 마스크 /EA -\$1.29 \$0.89	Steamer 다용도 찜기 220-300 MM/EA -\$4.99-7.99 \$3.49-5.99	LG Elastine Deep Moisture Shampoo /Conditioner LG 엘라스틴 모이스처 샴푸/컨디셔너 -\$8.99 \$6.49 680 ML /EA

100% 한국산 재료로 정성껏 만든 대한민국 대표김치, **종가집 김치!**

ENJOY KOREA'S FAVORITE KIMCHI HERE IN AMERICA!

Made with 100% Korean ingredients, **JONGGA Kimchi** offers taste you can trust!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사장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부사장 애나 정
617.780.1675
Boston Branch Manager
anna@bostonpremierrealty.com



이사 이제봉
781.654.5281
South Shore Branch Manager
jeb@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박성종
617.304.7001
Director & manager of Newton branch
sj@bostonpremierrealty.com



Steve Kwon
508.326.6285
Director of HR/Customer relationship
Steve@bostonpremierrealty.com



Kathy Eunsuk Song
413.313.4165
Manager of Hadley Branch
kathysong2019@gmail.com



크리스틴 손
773.968.2651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전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오성빈
978.505.3736
osb@bostonpremierrealty.com



Nikkie Park
617.447.0591
nikkiepark@bostonpremierrealty.com



이현주
401.935.3397
hyunju@bostonpremierrealty.com



최은경
781.690.4389
chrischoi@bostonpremierrealty.com



사라 유
617.838.5787
sara@bostonpremierrealty.com



Rick Shin
781.530.0034
ricks@bostonpremierrealty.com



이준균
617.543.5728
jun@bostonpremierrealty.com



다이애나 김
617.271.2037
diana@bostonpremierrealty.com



Shirley Zhao
857.231.0316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지나 최
978.866.3248
gina@bostonpremierrealty.com



최진민
617.877.0387
jinchoi52@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콥 신 617.710.8836
jacob@bostonpremierrealty.com

앤드류 리 857.540.1588
andrew@bostonpremierrealty.com



피터 주
617.780.7839
peter@bostonpremierrealty.com



이영순
781.800.3412
bostonyi@bostonpremierrealty.com



송문주
213.503.0397
marcia@bostonpremierrealty.com



미키 최
413.507.1402
mickichoi@gmail.com



한혜숙
781.999.1214
hhan@bostonpremierrealty.com



샬리 임
781.690.4309
hyunmi@bostonpremierrealty.com



Ritika Chopra
617.697.1191
rchopra@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9952
nancywang6000@bostonpremierrealty.com



황수진
617.538.6973
sujinhwang1@gmail.com



레이첼 김
617.852.7485
rachelkim@bostonpremierrealty.com



Jason Chen
978.277.8439
song@bostonpremierrealty.com



Henry Nguyen
617.803.8341
henry@bostonpremierrealty.com



John Tran
617.406.9852
john@bostonpremierrealty.com



차민영
651.402.5194
minyong@bostonpremierrealty.com



제이크 김
781.956.0409
drjakekim@bostonpremierrealty.com



PREMIER WORKS

좋은 사람들이 우리집처럼 여기고 정성껏 일하는 PREMIER WORKS. 각각 다른 레벨의 일에 맞는 인력이 투입되어서 비용을 절감합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인력이 공정 관리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합니다.

홈 리노베이션, 홈 익스텐션, 핸디맨잡, 배관, 전기, 난방, 커머셜/식당 디자인 시공.

“ I just wanted to say thank you for a job well done. The floors look terrific! I know the project was a challenging one, but I'm happy to say you and your team more than met the challenge. In addition, a concern I've had with contractors is not following up with loose ends. I'm happy to report all follow up requests were completed in a timely manner. In short, I highly recommend and will continue to use Premier Works for all of my flooring needs!

Sincerely, Mr. M. Malden, MA ”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Property Management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건물을 관리해 드립니다. 건축가, 부동산, 건축시공 전문가들이 함께 관리 합니다. All size condo, single family, multi family, commercial, Hands Free, All in One Service

렌트비 관리, 유지관리, 테넌트관리



Premier Realty Group
617.515.1162
info@bostonpremierrealty.com

WEEKLY SPECIAL



10 Nouvelle Way

Listed Yesterday,
Offer Accepted Today !!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40주년 기념 특별 할인
SINCE 1982

H Mart가 드리는 최고의
가/격/할/인
UNBEATABLE PRICE!

1월 13일부터 '한정판매'

청정원 고추장
가격은 내리고
쌈장은 덤!

하나를 사면
하나가 덤!



청정원 고추장 + 쌈장
GOCHUJANG 6.6 LB + SSAMJANG 1.1 LB/PKG

\$11.99

통통배 고등어 1+1
MACKEREL FILLET - 13 OZ X 2 EA/PKG

\$8.99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켈리 김 입니다.
주택에 관한 모든 용자들 도와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 · 낮은 이자율 · 최상의 결과
개인별 맞춤 용자 · 캐쉬아웃

바로 연락 주세요.

“ 급하게 시작한 상태이고 준비가 미약한 제 상태에서 괜찮은 집을 찾았지만 주변에서 안될수도 있다고 했지만 제 상황을 맞춰서 시간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켈리님을보고 만나지도 않았고 느껴지는 강한믿음!! 이분은 정말 이분야에서 정말 최고이신것 같습니다. 미국말이 더 편하시분인데도 한국말로 자세히 제가 알수 있도록 언제나 빠르게 진행해주시고,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 Lim

”



켈리 김

한국어, 영어 가능

주택대출 담당 - nmls #2027241

FL, MA, ME, NJ, NH, RI, TX 라이선스.

이메일: kkimthielen@radiusgrp.com

전화: 617.733.5014

한국어 웹사이트: info.radiusgrp.com/ko/kthielen

English Website: www.radiusgrp.com/kelliekimthielen



600 Longwater Drive, Suite 107, Norwell, MA 02061

Kellie Kim Thielen, Loan Officer - NMLS # 2027241; Licensed in MA, ME, NH, NJ, RI, TX. Employed by radius financial group inc., NMLS #1846., FL Lender/ Servicer MLD309/MLD1562; MA Lender/Broker MC1846 ME SLM6596; NH 7986-MB; NJ Residential Mortgage Lender License and RMLA-Licensed Mortgage Servicer Registration 1846; RI Licensed Lender/Broker 20031544LL/20183611LB; TX SML Mortgage Banker Registration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 식당 온라인 오더와 온라인 페이먼트를 한자리에서 해결
- 헤어와 네일 살롱의 온라인 예약과 온라인 페이먼트를 컴퓨터로
- 다양한 옵션을 완비한 디펜더블 컴퓨터로 간단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식당	살롱
온라인 음식 주문과 지불 epipay™	온라인 예약 관리 epiday™
온라인 매장 관리	온라인 매장 관리
고객 관리	고객 관리
디지털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
GIFT CARD 프로그램	GIFT CARD 프로그램
종업원 관리	종업원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Dependable Computer is an authorized independent reseller of United POS Solutions, Inc."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thony (Dubleu) Parish of Korean Church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은 새 입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9월 중순에 시작합니다.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30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오후 4시 30분 (Korean)

평일 미사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매달 첫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본당 유튜브 채널주소
<https://bit.ly/2j16ZdT>

Contact: stadparish@gmail.com
617-558-2711

45 Ash St, Newton MA 02458 / 617-658-2711
stadparish@gmail.com / stadparishchurch.org
www.facebook.com/stadparish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살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렬

HAN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동부: 오후 2시	대학부모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3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교회: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골프 레슨

US GTF **최성조 프로**
UNITED STATES GOLF TEACHERS FEDERATION
Leader in the Field of Golf Instruction

Master Golf Professional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sj.usgtf@gmail.com

857.600.6755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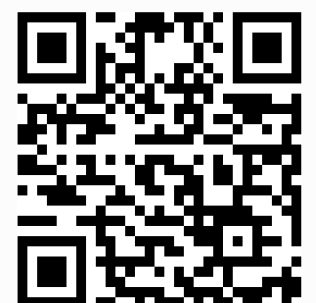


백신을 접종해

#여러분의 가족을 보호하세요

무료 코로나-19백신을 접종받으세요
 신분증, 건강보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백신접종장소를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찾으세요
[MASS.GOV/COVIDVACCINE](https://mass.gov/covidvaccine)



Asian American Civic Association



Eastern Bank

JOIN US FOR GOOD

보스톤 전망대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은한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큰 스님, 원효와 의상 대사

서기 645년에 인도로 유학을 떠났던 당나라 현장(602~664) 스님이 17년만인 674년에 당나라로 돌아오자 당나라 스님들은 물론이고 신라 스님들까지 새로운 불법을 배우려는 바람이 불었다. 이에 의상(625~702)은 사형 원효(617~686)에게 중국에 함께 유학할 것을 권유하게 되었다. 이때가 진성여왕 4년(650)이었는데 요동 근처에서 고구려 순라꾼들에게 간첩으로 잡혀가 수십일만에 겨우 풀려 돌아왔다. 이 사실은 최치원의 의상 본전과 원효대사행장에 실려 있는데 그때 원효의 나이는 34세였고 의상은 8살 어린 26세였다.

그후에 10여년의 세월이 흘러 신라 문무왕이 즉위하던 661년에 원효, 의상 두사람은 다시 당나라 유학을 시도하게 된다. 원효대사가 44세, 의상대사가 36세때였다. 화성 당성은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삼국시대 성곽으로 당항성이라고 불려왔다. 이 지역은 원래가 백제의 영역이었으나 고구려 광개토태왕, 장수왕때 고구려 영토가 되었다가 신라 진흥왕이 관산성 싸움에서 백제 성왕을 살해하고 이 지역을 점령하여 당항성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당성이 위치하고 있는 남양지역이 지금은 화성이지만 신라 경덕왕때는 당은군으로 칭해진과 함께 신라 해군의 근거지가 된 곳이다. 그래서 원효, 의상 두사람은 지난번 여행처럼 요동을 거치지 않고 당항성 뱃길로 해서 산동성 등주로 가는 일정을 준비하였다. 그런데 두사람이 길을 떠나 당항성에 이를 즈음에 극심한 폭우에 날아져 물이 토굴에 몸을 숨기고 극심한 비바람을 피하게 되었다. 정신없이 깊은 잠에 빠진 비몽사몽간에 심한 갈증을 느껴 주변에 있는 물을 달게 마시고는 또다시 기분 좋게 잠을 청하였다. 원효대사가 아침에 잠을 깨어 일어나보니 놀랍게도 간밤에 잠을 잔 곳은 토굴이 아니고 해골이 흩어져 있는 옛 무덤이었고 더 놀라운 사실은 어제 밤 달게 마셨던 시원한 물은 해골에 괴어 있던 썩은 물이었던 것을 알고는 연신 토약질을 계속 해대었다. 하늘에서는 굶은 비가 계속 내리고, 땅이 질척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토굴이 아닌 무덤속에서 하루를 더 묵게 되었다. 원효는 탄식하며 말하기를 "전날 밤에는 토굴이라 생각하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는데, 오늘 밤에는 귀신굴에서 잠을 자려하니 마음이 산란하고 깨름칙하다. 토굴과 무덤은 각각 다른 것이지만 마음이 편하면 토굴과 무덤도 한가지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다." 원효는 이순간에 커다란 깨달음을 얻게 된다. "모든 것이 생각하기 나름인데 어찌 따로 구하겠는가?" 라고 말하며 의상과 가는 길을 달리하게 되었다.

무덤군이 발견되었던 백곡리 고분은 당성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던 고분으로 추정하고 있다. 의상과 헤어져 신라로 돌아온 원효는 마치 불법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자유분방한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술집과 기생집을 드나

들고, 맨발로 걸어다니며, 쇠지팡이를 잡고 다니는데 그 끝에 가위나 거울을 매달고 다녔다. 원효의 과격적인 교화활동은 당시 귀족적인 승단의 입장에서 보면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한번은 신라 국왕이 신라의 고승들을 모아 인왕회(仁王會)를 개최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원효의 행동이 미친 사람 같다는 상소를 올려 원효가 선발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원효는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민중교화에 힘을 쏟아 수행자만의 담장을 헐어버리고 귀족 불교대신 민중속에 살아 숨쉬는 불교를 전하는데 앞장서게 된다. 원효는 어느날 아들 설총이 태어난 후에 속인의 옷을 걸치고 소성거사(小姓居士)라 칭하며 화엄경의 구절을 노래로 만들어 무애라는 이름의 표주박을 가지고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노래와 춤으로 민중을 교화하였다. 가난하고 무지몽매한 무리들까지도 모두 부처의 이름을 알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게 되었으니 원효가 행한 교화의 힘이 대단하였다.

그는 누구든지 지극한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열번만 부르면 서방 극락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원효와 헤어지고나서 의상은 당나라 사신의 배를 빌려타고 당항포를 거쳐 산동성 등주에 도착한다. 양주(지금의 장수성)에서 신도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그집의 딸 선묘(선묘)가 의상에게 반하게 되었는데 불문에 귀의한 의상에게 흔들림이 있을 수 없었다. 결국은 스승과 제자로 연을 맺을 것을 약속하게 되는데 두사람 사이의 인연은 속세를 넘어 후세와 신라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후에 의상대사는 종남산 지상사(至相寺)에서 화엄종 2대 조사인 지엄화상 문하에서 현수(법장)와 같이 화엄의 깊은 이치를 깨닫게 된다. 나중에 현수는 지엄의 뒤를 이어 화엄종의 3대 조사가 되고 의상은 신라 화엄종의 시조가 된다. 의상이 지엄을 스승으로 모시게 된 내막을 삼국유사의 저자 일연은 그날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었다.

"지엄은 전날 저녁 꿈에 큰나무 한그루가 해동(신라)에서 생겨나 가지와 잎이 우거지고 그늘이 생겨 중국에까지 와서 덮는 것을 보았다. 그 나무 위에 봉황새의 보금자리가 있어 올라가 보니 한개의 마니 보주가 있었는데 멀리까지 빛나는 것이었다." 꿈을 깨 후 놀랍기도 하고 이상해서 깨끗이 청소를 하고기다렸더니 의상이 왔다. 지엄이 영접하고 나서 "내가 어제밤 꿈은 그대가 나에게 온다는 계시였구나." 그리하여 제자가 되는 것을 허락하니 이에 의상은 신라 화엄종의 큰 스님으로 탄생하게 된다. 의상은 8년동안의 정진 끝에 화엄경 60권을 요약, 편찬한 10권을 지어낸다. 나중에는 210 글자로 우리 중생들이 부처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암송하는 "화엄일승법계도"를 완성한다.



원효 대사 진영, 조선 19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의상 대사 진영, 일본 무로마치 시대, 교토 고산사 소장



당항성, 원효, 의상 해골묘 사적지



부석사 선묘각



부석사의 떠있는 돌, 무게 100톤. 돌석자 네모안에 점을 하나 찍어 놓은 것은 바위가 하늘로 떠오르지 않도록 고정한다는 의미

의상은 어느날 홀연히 귀국길에 오른다. 그 무렵 당나라에 사신으로 왔다가 감옥에 갇힌 태종 무열왕의 둘째 아들 김인문으로부터 당 고종의 신라 침공계획을 전해 듣고 의상은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귀국을 서두른다.

선묘 낭자는 언젠가 의상이 학업을 마치고 신라로 돌아갈 때를 대비하여 의상, 법복 등 모든 집기를 장만하여 상자에 넣어두고 있었다. 의상이 총망중에 선묘의 집을 찾아 갔지만 길이 엇갈려 만나지 못하고 선묘가 서둘러 상자를 안고 바닷가로 나아갔지만 의상이 탄 배는 멀리 바다 가운데 있었다. 선묘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본래 진실한 마음으로 원하노니 이 상자가 저 배안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선묘는 의상이 탄배가 무사히 바다를 건널 수 있기를 기원하며 바다에 몸을 던졌다. 선묘의 기원대로 그녀는 바다용이 되어 의상의 뱃길을 지켰으며 의상을 위한 수호신이

되었다. 의상이 부석사를 창건할때 그지역의 이교도들이 이를 반대하자 바다용이 된 선묘가 큰 바위들이 되어 하늘을 떠다니며 이를 물리쳤다고 한다. 이 바위들이 무량수전 뒤에 있는 큰 바위인데 조선시대때 쓰여진 택리지(擇里志)에 따르면 두돌 사이가 눌러 있지 않아 조금 틈틈이 있어 실을 넘기면 걸리지 않고 드나들 수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절 이름도 공중에 뜬 절이라고 해서 뜰 부(浮)에 돌 석(石)을 써서 부석사로 이름지었다. 바위에 쓰여진 글자의 돌석자 네모안에 점을 하나 찍어 놓은 것은 바위가 하늘로 떠오르지 않도록 고정한다는 의미로 찍었다고 한다. 부석사 무량수전과 의상대사가 거쳐했던 조사당은 안동 봉정사 건물과 함께 현존하는 목조건물 중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무량수정 북서쪽 모서리에 선묘각이 따로 있고 선묘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668) 한국 주식투자 실패

한국에서 주식 열풍과 함께 이름난 한 주식 전문가는 젊은이들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언급한다. 그러나 한국의 주식투자는 여러 가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의 돌파구가 된 것이다. 주식 종목과 주식가격을 수시로 확인하고 대박을 기대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도박)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는 외국 기업에 투자하지 말고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한다. 추천하는 이유가 “왜 옆집 자식에게 투자하느냐? 본인 자식에게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 고 말한다. 그럴듯한 설명이다. 개인 투자자가 질문한다. “한국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오랫동안 저조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답변은 “한국 투자자가 국내에 투자하지 않아서 주식시장이 커지지 않았다고 투자자의 잘못” 으로 설명한다.

개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이유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지만 주식시장 규모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2021년 미국의 주식시장 수익

률은 27%이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3.6%로 마감했다. 단 1년의 결과만을 가지고 언급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은 지난 12년간 매년 평균 수익률이 무려 15% 이상이다.

“회사 삼성 등은 크게 성장했지만 망하는 회사에 투자할 수도 있지 않은가?” 하고 개인 투자자는 질문한다. 전문가는 왜 투자를 비관적으로 생각하느냐고 오히려 반문한다. 이것은 비관적인 생각 때문이 아니라 투자자가 염려하는 투자 위험성(Risk)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매년 파산하는 회사는 수없이 많다. 그런데 전문가는 망하는 회사를 선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렵다고 말한다.

한국의 주식시장 규모는 전 세계와 비교해서 단 2%에 불과하다. 제대로 하는 투자의 기본은 분산투자이다. 투자자가 한국 2%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그중 몇 개의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소위 ‘몰빵 투자’ 이며 이러한 투자는 매우 위험성 높은 투자라고 말할 수 있다. 미국의 주식시장은 세계에서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500대 기업으

로 구성된 투자는 위험성(Risk)이 한국보다 훨씬 더 적다고 말할 수 있다.

전문가는 미래 유망한 회사를 선정해서 장기투자하면 큰돈으로 불어난다고 말한다. 그리고 투자하는 회사는 동업자이기에 회사의 경영방침, 경영인의 마음가짐, 경쟁사, 영업보고서, 전략, 시장지배력, 수익성, 대차대조표, 부채비율, 등을 파악해서 결정하고 후에 기대에 어긋나면 팔아야 한다고 한다. 실현성이 거의 없는 꿈같은 말이다.

테슬라의 ‘배터리의 날’ 최고경영자의 말을 밤새워서라도 경청해야 한다고 한다. 그레아 회사 경영방침 등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일반 투자자는 물론 소위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도 하기 어려운 일이다.

미국 ‘퀴비(Quibi)’ 회사가 창업할 때 매우 짧은 기간에 2조 원가량을 투자받았다. 공동 창업자 캐치버그는 ‘슈렉’ ‘마다가스카’ 등을 제작했던 드림웍스 창업자이고 휘트맨은 이베이와 HP를 경영했던 최고 경영자였다. CES 2020에서 두 사람이 기조 연설에서 희망찬 회사의 도약을 발표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동영상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퀴비’ 회사가 폐업한 것이다. 일반 투자자나 증권 전문가가 경영진의 말을 경청한 후 회사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었을까?

미래의 기업이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 경영자 자신도 모를 수 있다. 미국의 회사마다 최고 경영자가 자주 교체되는 이유이다. 기업을 방문해도 회사의 운명은 알 수 없다. 회사의 어떤 문제가 있다면 누가 이런 사실을 말하겠는가? 사실을 안다고 해도 미래에 어떠한 결과로 나타날지도 역시 모른다.

젊은이들은 물론 주부나 아이들도 주식투자 클럽을 만들어서 너도나도 주식 투자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한 나라 전체가 도박장 이 되는 것이 아닌지 염려스러운 일이며 잘못된 주식투자로 소중한 자산은 물론 건강까지 잃을까 염려스럽다.

제대로 하는 투자로 개인이 먼저 부를 쌓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만 소비로 기업이 발전하고, 기업이 성장해야 국가가 부강해지는 것이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22세 풍월주(風月主) 양도공(良圖公)(19)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김양도의 세계世系를 보면 다음과 같다. 양도의 아버지는 모종(毛宗)이다. 모종의 부모는 11세 풍월주를 지낸 하종과 미모낭주이다. 하종의 부모는 6세 풍월주를 역임한 세종과 미실이다. 세종의 부모는 태종이사부와 지소태후(진흥왕의 어머니)이다.

양도의 양부(養父)는 16세 풍월주를 역임한 설보종이다. 보종의 부모는 7세 풍월주를 지낸 설원랑과 미실이다. 미실은 양도의 증조모이며, 양부 쪽으로 보면 조모이기도 하다.

양도의 어머니는 양명공주이고, 양명의 부모는 제26대 진평왕과 보명공주이다. 보명의 부모는 각각 구진과 지소태후이다. ‘아름답고 향기가 있었다’ 고 화랑세기에 기록된 보명은 처음에는 진흥왕의 후궁이었다(진흥왕과는 이부동모 남매이다). 576년 진흥왕이 죽은 후에는 제25대 진지왕의 후궁이 되어 석명을 낳았다(진지왕은 진흥왕의 차남이다). 579년 진지왕이 폐위되었고, 진흥왕의 장손인 김백정이 13세의 어린 나이에 진평왕으로 옹립되었다. 그리고 사도태후(진흥왕의 비)는 미실과 보명을 좌우후(左右后)에 임하고 진평왕을 색도하게 명하였다. 미실은 자신이 (비교

적) 골이 낮고 천하다(36) 보명에게 먼저 진평왕에게 색도하도록 양보를 했지만, 보명은 당시 진지왕의 아이를 임신한지 3개월 가량 되었기에 사양했고 미실이 먼저 진평왕을 색도하게 되었다. 하지만 곧이어 색에 눈을 뜬 진평왕은 스스로 보명궁을 찾았다(원문에는 ‘제기통창(帝統通暢) 자지보명궁구도(自至寶明宮求導)’ 로 나와 있다). 보명은 진지왕의 딸인 석명을 출산 후 3년여간 진평왕 총애를 받아 양명공주를 낳았다. 양명은 어머니 보명을 많이 닮아서 역시 아름답고 향기가 나서, 진평왕이 특히 사랑하여 늘 곁에 두고 있었다. 나이가 20이 넘어 설보종에게 시집을 가서 보라와 보랑을 낳았다.36) 그후 곧 색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늘 신선처럼 지내는 남편 보종을 쳐다보기만 하다가, 보종이 17세 풍월주로 역임할 때 부제였던 김염장과 사통하여 아들(장생(長生))을 출산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난새(鸞鳥)의 꿈을 꾸고 길조라 여겨 남편 보종의 잠자리를 원하였지만, 그는 그만 자는척 하며 돌아누워 코를 골았다. 보종은 양명이 잠자리를 원하기 직전에 조카인 모종과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자는척 하면서 벼루를 차서 모종의 옷에 먹물을 튀겼고, 그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양명과 모종은 사통하게 되어 김양도가 태어났다(양명의 나이 28세였다).

36) 미실과 보명의 골골을 살펴보면, 먼저 미실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 다른 사서에

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화랑세기에만 등장한다. 그렇다고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화랑세기에 의한 미실의 골과 통을 보면 그녀의 부모는 미진부와 묘도이다. 미진부는 2세 풍월주를 역임하였고, 미진부는 삼국사기의 기록에 보면 551년 (진흥왕12년)에 아찬의 관등으로 대각간 거칠부 등 7명의 장군과 함께 고구려를 공격하여 죽령 이북에서 철령이 남까지의 한강상류지역 10 군(郡)을 점령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미진부는 남모공주(부모는 범흥왕과 백제 보공공주이다)를 부인으로 맞고 있었는데, 남모와 준정이 원화의 우두머리로 있을 때 서로 아름다움을 시기하여, 준정이 남모를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다. 부인을 잃은 미진부는 묘도와 사랑하여 미실을 낳았다. 미진부의 부모는 아시공과 삼염공주(부모는 범흥왕과 백제부인이다)이다. 미실의 어머니 묘도의 부모는 박영실과 옥진공주인데, 옥진 역시 범흥왕의 후궁이기도 했다. 옥진의 아버지가 위화랑인데, 위화랑은 ‘남모와 준정의 사건’ 으로 원화가 폐지되면서, 화랑도를 설치했을 때, 화랑도의 수장인 초대 풍월주가 되었고, 미진부는 부제로 발탁되었다가 2세 풍월주를 역임하였다.

한편 보명의 부모는 대각간 구진(仇珍)과 지소태후이다. 지소의 부모는 범흥왕과 보도왕후이다. 구진 역시 551년 상기 언급한 같은 전투에 대각간 거칠부와 미진부 등의 장수와 함

께 참전하여 한강유역을 쟁취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구진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또는 삼국유사 등)나 화랑세기에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이 없다. 하지만 대각간(대각간)의 벼슬을 지내고 지소태후의 침신인 것으로 보아 고위 귀족임에는 틀림없다.

36) 미실과 7세 풍월주 설화랑의 아들로 태어난 보종은 장성해서도 술과 여자를 좋아하지 않았다. 14세 풍월주 김호림이 보종을 좋아하여 부제로 삼았는데 그들의 정이 마치 부부와 같았다. 또한 여자가 되어 섬기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까지 했다(동성애의 관계가 물씬 풍기는 장면의 기록이다). 여자와 결혼에 관심을 보이지 않자, 보종의 어머니 미실은 심히 염려가 되어 윤궁(允宮)(거칠부의 딸)의 딸 현강(玄剛)에게 모시도록 했지만 보종은 전혀 접촉하지도 않았다. 근심이 더욱 심해진 미실은 종실의 여자들을 모아서 보종과 친해진다며 큰상을 주겠다고 하였다. 많은 여자들이 노력했지만 이루지 못하였고, 양명공주가 보종을 유혹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보라와 보랑을 낳았다. 보라는 김준주의 첫 부인이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2022년 집값 오르는 게 맞나요?



MORTGAGE RATES PROJECTED TO RI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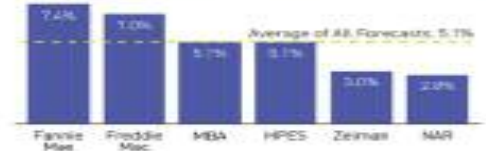
Mortgage rates are projected to rise in 2022, yet still remain historically low.

2022 PROJECTED RATES	
Fannie Mae	3.3%
Freddie Mac	3.5%
MBA	4.0%
NAR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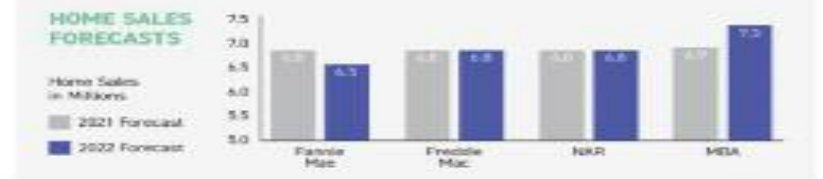
HOME PRICES FORECAST TO APPRECIATE

Home prices will also keep rising thanks to continued low housing supply and high buyer demand.



HOME SALES PROJECTED TO BE STRONG

Home sales are expected to perform well again in 2022 as more people move to meet their changing needs.



Sources: Fannie Mae, Freddie Mac, MBA, NAR, Pulsonomics, Zelman

KEEPING CURRENT MATTERS

2022년 주택 시장 도표를 보면서

오늘은 2022년 집값이 오르라고 물으시는 손님들이 많으셔서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도표를 보고 이야기 해 보고 싶다.

지난주에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에서 내 놓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일단 집 매매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는 용자율이다.

도표를 보면 1970년부터 오늘까지 그동안에 용자율을 볼 수 있다. 1980년초 내 부모님이 처음 집을 사셨을 때 이자율이 18%로 기

억을 한다.

1980년도에는 평균 12.7%로 명시되어 있다. 지금 현재와 이율과 비교를 했을 때 \$100,000 기준으로 돈을 빌렸을 때 한달에 내는 돈이 30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달 페이먼트가 \$600이상이 차이가 난다.

도표에서도 말하는 것과 같이 올해 이율이 오른다고 해도 아직도 역사상 가장 낮은 이율을 유지하고 있다. 도표 두번째에서 말하는 올해도 집값이 오를까라는 질문은 항상 Demand(바이어) Supply(셀러) 에 비율을 관찰하면 답이 나온다.

아직 계속되고 있는 Covid 상태에 많은 사람들은 나오는걸 두려워하고 자택 근무를 선호한다. 집을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고 사고 싶어 하는 사람만 줄을 서 있는 현실에서 과연 집값이 떨어질까?

도표에서는 평균 5.1% 오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도표 마지막을 보면 올해도 매매는 많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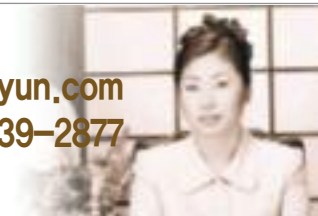
작년 칼럼에 누누이 썼던 이야기이지만 Covid 사태에서도 경제는 잘 돌아가고 있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난리인 이 때 이율까지도 부동산 시장을 도와주고 있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1월 16일 - 1월 22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외로움도 전염이 된다고</p> <p>●운수: 해외로 나가거나 장거리 여행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사나 변동, 확장하기에도 적합한 때가 아닙니다. ●금전: 힘들다고 해서 지금 현실과 타협하는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훗날 찾아오는 복을 차버린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애정: 외로움도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상대의 외로움이 자신에게 전달되어 외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19, 22일 길일. 17, 20일 주의.</p>	<p>소띠 해결의 실마리를</p> <p>●운수: 자신의 판단에 확신을 하고 행동해도 되겠습니다. 긍정적이고 밝은 쪽으로 생각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금전: 소수의 만족보다 배부를 것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인색하게 하지 말고 인간관계의 화합에 신경 쓰도록 하세요. ●애정: 약혼이나 결혼하기에 최적기입니다. 우연히 방문한 곳에서 멋진 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16, 20일 길일. 18, 21일 주의.</p>	<p>범띠 조금씩 이루어지는</p> <p>●운수: 조금씩 이루어지는 기쁨이 있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면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금전: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금전적으로 안정되는 시기이니 투자에서도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애정: 일시적인 측면만 보지 말고 긴 안목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정을 나누게 되니 더 가까워집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17, 21일 길일. 19, 22일 주의.</p>
<p>토끼띠 현실에 만족하고</p> <p>●운수: 현실에 만족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새로운 투자나 사업 확장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의 동요만 없다면 무난하게 지나갈 것입니다. ●금전: 모든 일을 순서대로 따라 절차를 밟도록 합니다. 자기 뜻을 분명히 밝혀야 손해가 없을 것입니다. ●애정: 처한 현실이 힘들수록 부부나 이성 간에 이해심으로 상대를 받아주어야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습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18, 22일 길일. 17, 20일 주의.</p>	<p>용띠 서로 간의 애정이 더 깊어지는</p> <p>●운수: 오랫동안 뜻대로 되지 않던 일이 해결되고 여러 면에서 나아집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의기투합하게 됩니다. ●금전: 금전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쉽게 풀려 나가겠습니다. 뜻밖의 소득으로 웃음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 희소식이 들려오고 서로 간의 애정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권태기의 부부나 연인에게도 희망이 보입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19, 20일 길일. 21, 22일 주의.</p>	<p>뱀띠 적당한 선에서</p> <p>●운수: 아무리 내가 옳다 하더라도 옳은 것이 통하지 않고 막히는 일이 있을 때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보는 것이 상책입니다. ●금전: 수입이 떨어지는 주입니다. 너무 매상을 올리려고 무리하다가는 오히려 문제가 발생합니다. ●애정: 주위의 눈을 피해서 만나야 하는 사람이 점점 깊은 관계에 빠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잘 피해야 할 것입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17, 20일 길일. 19, 22일 주의.</p>
<p>말띠 차분한 마음으로</p> <p>●운수: 주의가 산만하고 초조해지기 쉽군요. 이 일을 하면서 저 생각 저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전: 차분한 마음으로 적당한 긴장한 상태에서 일해야 하겠습니다. 계산상의 착오로 손해가 따를 수 있습니다. ●애정: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18, 21일 길일. 20, 22일 주의.</p>	<p>양띠 이 기회를 잘 활용하도록</p> <p>●운수: 사업상으로 그동안 하던 일을 바꾸거나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전업을 계획하는 시기로 적합합니다. ●금전: 돌아가는 상황과 형편이 좋아지니 지금 오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하도록 합니다. 외부로 활동해야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애정: 시부모나 가족과의 갈등이 해소됩니다. 독신자는 분홍빛 사랑을 맛보게 되는 주가 될 것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7, 22일 길일. 20, 21일 주의.</p>	<p>원숭이띠 가슴을 활짝 열고</p> <p>●운수: 원가 변화를 주고 싶다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몸과 현실이 따라주지 못해서 갈등을 겪게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금전: 가슴을 활짝 열고 먼저 배우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좁은 소견으로 결정하면 그 만큼의 경제적 손실이 따르게 됩니다. ●애정: 사랑의 감정에 빠져있어도 결혼을 결심하기에는 자기 자신만이 느끼는 고민이 많겠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0, 21일 길일. 16, 22일 주의.</p>
<p>닭띠 한 걸음 물러서서</p> <p>●운수: 외면보다는 내면에 충실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나 앞서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금전: 주위 사람으로 인해서 자출할 일이 생깁니다. 특히 순간적인 결정으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애정: 성격 차이가 있어서 힘든 상대 때문에 고민하게 됩니다. 지금보다 앞으로 함께 가야 할 수많은 날을 생각해야 합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6, 19일 길일. 17, 20일 주의.</p>	<p>개띠 행복하고 편안한</p> <p>●운수: 주위의 변화에 잘 대응해야 대길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의 지지를 얻을 기회가오니 신용회복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금전: 성실하게 일하면 뜻밖의 행운을 잡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의 도움으로 재기할 기회도 얻게 될 것입니다. ●애정: 행복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지내게 됩니다. 외로웠던 사람은 의지할만한 사람을 만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7, 19일 길일. 16, 18일 주의.</p>	<p>돼지띠 미리 대처하는</p> <p>●운수: 계획했던 일이 다소 늦어질 것이니 미리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금전: 매매하는 일로 고심하게 됩니다.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애정: 유혹에 빠져들면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95, 83, 71, 59, 47, 35년생은 18, 22일 길일. 16, 19일 주의.</p>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12/17
 셀폰 스토어 풀타임, 파트타임 북키퍼 및 매니저 구함
 hongkyonghui@hotmail.com

10/29
 렉싱턴에 있는 치과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실분 구합니다.
 경험이 없으신분은 트레이닝 해드립니다.
 T. 781-859-9218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생활서비스

광고 문의 617-254-4654

외신 "할아버지 스타 오영수, 골든글로브 역사 새로 썼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미국 영화상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할리우드의 보이콧으로 파행했지만, 외신들은 '오징어 게임'의 오영수가 한국 배우 최초로 남우조연상을 받은 것을 올해 시상식의 주요 장면으로 꼽았다.

CBS 방송은 10일(현지시간) "올해 골든글로브는 TV 생방송이나 스트리밍 행사가 없어 예년보다 더 조용했지만, 몇몇 스타들이 역사를 새로 썼다"며 "'오징어 게임' 스타 오영수가 골든글로브상을 받은 최초의 한국 배우가 됐다"고 평가했다.

로이터 통신은 "할아버지 오영수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상을 차지했다"고 전했고, CNN 방송도 "'오징어 게임' 스타 오영수가 역사를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외신은 오영수가 넷플릭스 최고의 흥행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오일남 역할로 인상 깊은 연기를 선보여 팬들을 사로잡았다면서 그의 연기 인생을 소개하기도 했다.

CBS 방송은 "오영수가 200편 이상 연



극무대에 선 한국에서 가장 위대한 연극 배우 중 한 명"이라며 "영화와 TV 드라마에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조연을 연기했다"고 전했다.

포브스는 "독창적인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순식간에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인기 드라마라는 명예를 얻었고 극중 오영수는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였다"며 "(골든글로브 수상에 따라) 78살 그의 연기 이력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박수를 보냈다.

jamin74@yna.co.kr

블랙핑크 리사, '머니' 퍼포먼스 비디오 4억 뷰 돌파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블랙핑크 리사가 발표한 솔로곡 '머니'(MONEY)의 안무 영상이 유튜브에서 4억 뷰를 달성했다.

10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머니' 익스클루시브 퍼포먼스 비디오(Exclusive Performance Video) 영상의 유튜브 조회 수는 이날 오후 3시 35분께 4억 회를 넘어섰다.

지난해 9월 24일 영상이 공개된 지 약 108일 만이다.

소속사는 "같은 조회수에 도달한 K팝 아티스트의 안무 영상 중 최단 신기록"이라며 "(4

억 뷰) 그룹으로도 달성하기 쉽지 않은 조회 수인데 솔로곡 안무 영상으로써 단연 독보적인 성과"라고 자랑했다.

지금까지 4억 뷰를 가장 빨리 달성한 기록은 블랙핑크의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 안무 영상이 세운 120일이다. 리사는 이보다도 12일 기록을 앞당겼다.

'머니'는 리사의 솔로 앨범 '라리사'에 수록된 곡으로 중독적인 후렴구와 강렬한 힙합 사운드가 팬들의 관심을 끌면서 국내외 차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보스톤코리아

코로나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건강이 당신의 가족을 지킵니다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자기답게 살기

우리는 모두 내 이름 말고도 남에게서 불리는 이름이 있다.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누구 남편, 누구 아내, 누구의 부모,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사위 등 내가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붙여지는 이름표이다. 결국 그 이름표를 붙이고 돌고 돌아서 제자리에서 만나는 것은 바로 나인 것이다. 그것은 싫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우리 문화와 사회적 통념 속에서 이어진 것이기에 별 불편함 없이 지내왔다. 세상 나이 60이 될 때에는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나의 이름으로 불리고 싶다는 것이다.

'자기답게 살기'란 쉬운 듯하나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우선 '나'에 대한 실제적인 정립이 이어야 한다. 도대체 나란 누구이며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왔을까. 그럭저럭 부모 밑에서 자라다 한 남자와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다 아이들이 타 컷을 때 나를 뒤돌아보면 그때는 너무 늦어지는 것이다. 나의 깊은 내면에서의 '진정한 나'와 대면하며 나와 만나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묵상(명상)의 시간을 마련해 어수선한 마음을 가다듬고 고요함 속에서 참 나를 찾아야 한다.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답게 살기란 남을 카피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사는 힘을 의미한다. 삶이 버거울수록 나는 힘들고 상대방은 뭐든 잘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보여지는 단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속에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 그 어느 곳이나 걱정이나 근심이 없는 곳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모든 것은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다. 슬픔이나 괴로움, 기쁨이나 행복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한다. 어떤 환경에 놓여 있더라도 그것을 끌어안고 있으면 고통이지만, 이겨낼 힘이 바로 기쁨의 원천이다.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성향(성격, 성정)이 있다. 그러나 장점과 단점은 늘 함께 움직인다고 보면 된다. 너무 밝은 사람은 때로는 때와 장소에 따라 경망스러워 보일 때가 있다. 또한 너무 조용한 사람은 심심한 대신에 차분하니 남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경청자의 역할을 한다. 누구에게

나 장단점이 있으니,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상대방을 위함이 아닌 나를 위해서 상대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많이 볼 수 있으면 세상 살기가 편안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감사의 마음이 내 마음에서 우러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부부 사이에도 그렇지 않던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남편을 아내를 고쳐보려고 애쓰지만, 내 마음에 화만 차오르고 짜증만 나고 결국에 되돌이표처럼 별반 변함이 없지 않던가. 그렇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극한 상황에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따라 삶의 모습이 조금씩 변화할 수 있을 테지만, 사람은 그리 쉬이 변하지 않음을 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라지 말고 내 마음을 바꾸는 편이 마음 편안해지는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도 못 바꾸는 일을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강요하는 것이 옳은 일이겠는가.

삶의 작은 일상에서 소소한 기쁨을 시작하는 것이다. 요즘처럼 모두가 활동이 제약받고 제한되는 이때에 자연과 벗 삼아 걷고 계절에서 만나는 숲과 나무들 사이의

바람을 느껴본다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하나의 세상과 만나는 것이다. 나도 그들과 함께 또 하나의 자연으로 머물러 교감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 시간을 늘려간다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내 속의 '깊은 나'와 대면하는 시간이 느는 것이다. 나는 나로서 '충분한 나'로 있음을 깨닫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나 아닌 다른 누구를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자기답게 살기'를 실천하기 위해 나를 먼저 알아야 한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시간을 내어 생각해 보면 좋을 일이다. 곁에 누가 무엇을 하니 나도 해야지 하는 마음이면 어리석은 마음이다.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조금해지고 불안해지는 마음이 일렁거릴 것이다. 그러니 그 곁의 사람이 하는 일에 칭찬해주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 감사가 차오르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다. '자기답게 살기' 위해서는 감사의 마음이 우선이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서설 瑞雪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을 겨울 눈은 늦었다. 보스톤엔 한창 겨울인데 이제야 새해 첫눈이 내린거다. 시인 김소월이다.

흰 눈 타고 오시네. 저녁때 흰 눈은 퍼부어라 (눈오는 저녁, 김소월)

바람 자는 이 저녁
흰 눈은 퍼붓는데
무얼하고 계시노
같은 저녁 금년은...
꿈이라도 꾸면은
잠들면 만날런가.
있었던 그 사람은

서설瑞雪, 새해 첫눈을 말하는 걸까. 축복이란 말과 함께 같이 하곤 한다. 서설은 상서로운 눈이란 말인데 상서롭다는 말 또한 어렵다. 복되고 길한 일이 일어날 조짐이란다. 누구의 말대로 모두 덮고 새로 시작하자는 너른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다.

한편 서설은 결혼식과도 맞물려있지 않나 싶다. 이런 글귀도 있다. '결혼을 축하하는듯 하늘에선 서설이 내리기 시작했다.' 또는 '결혼식날 눈이 내리자 사람들은 서설이라며 기뻐했다.' 역시 서설은 기쁨과 같이 하는데 화이트 크리스마스도 있긴 하다. 그러나 눈오는 새해라 해서 화이트 뉴이어란 말은 없다.

아직 어릴 적이다. 새벽녘에 자주 오줌이 마려웠다. 요강보다는 변소에 가야 했다. 머리가 조금은 더 컸기 때문이다. 흰눈 덮힌 마당을 건너야 했는데, 그건 달갑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밤새 내린 눈을 보면 야, 눈이다. 소리치곤 했더랬다. 어머니의 눈총이 같이 했다. '네가 강아지냐?' 이젠 눈을 즐길만한 눈도 마음도 시콩똥하다. 아니 오히려 성가

시다. 하긴 예상 못한 눈이 내리면 교통혼잡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적도 있긴 했었다. 지하철은 만원이며, 눈을 털어내는 광경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있었다.

눈오는 밤엔 이용악인가 한다.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이용악). 고향에도 눈은 내릴텐데 새해가 시작됐다. 복된 눈이다. 땅에 눈이 내리고 (욥기 37:6)

명품안마의자 겨울맞이 대세일

“ 후지 안마의자가 강력한 첨단 기능으로 다시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

FUJII 8500

BRAND NEW

길모양이 유사한 상품에 주의하세요.

Special Gift

FJ 8500
일시불 구입시
스텐딩 김치냉장고
무료증정

~기간: 2022년 1월 30일까지 ~ 선착순 30명

- ◆ 타명품 안마의자 장점만을 골라 만든 최상급 안마의자!
- ◆ 프로 안마사 손길에 가장 근접한 마사지 체어!
- ◆ 몸속 깊숙이 침투! 빈틈없고 확실한 마사지 효과!
- ◆ 발, 종아리, 무릎, 허리까지 온열 테라피 기능!
- ◆ 최첨단 기술과 정밀 부품 사용으로 소음이 적어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고장율이 낮음!

안마의자 구입!
서비스가 확실한
전문회사에서
구입하세요!

오래되고
낮은 안마의자
특별가격으로
드래프팅!



FUJIYOKI FJ8500

FUJIYOKI FJ8600

FUJIYOKI FJ8300

EVERYCARE PKH201

EVERYCARE PKH301

EVERYCARE PKH501

EVERYCARE 107

더욱 고급스럽고 세련된 디자인!
커피한잔의 가격으로
안마의자를 구입하세요~

SPECIAL PRICE

\$68/월

MSRP \$3,999

\$2,900

BRAND NEW



HITRONS™
LEXINGTON, MA

1666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02420
781.862.6867 / www.hitrons.com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중앙대학교병원>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덕현 교수의 '우울증' 미니 진료실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휴람 의료네트워크 중앙대학교병원 한덕현 교수의 여러 가지 사연과 조언을 통해 우리가 잘 몰랐던 우울증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과거와 달리 우울증에 대한 질환 인식이 많이 개선됐지만 '내가 우울증이 맞는지', '우울증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코로나19로 경제적·심리적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는 요즘, 누구나 쉽게 우울증 또는 우울감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우울증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1. 제가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우울증이 유전될까요?
우울증은 유전병이 아닙니다. 다만, 가족력은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2. 우울증이 많이 나아지고 안정됐지만, 오랜 우울증의 여파로 인지기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전의 인지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울증이 좋아지면 인지 기능이 회복됩니다. 50대 후반에서 인지기

능의 저하를 치매로 착각하고 다른 곳에서 치매 진료 및 치료를 받으시는 분도 있는데,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셔서 우울증을 감별해야 합니다.

3. 우울증과 더불어 경계성 성격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상대의 평가에 따라 기분이 오락가락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격장애의 경우 지속적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단순히 '이렇게 하면 좋아진다, 저렇게 하면 극복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경계성 성격장애 판정을 받으셨다면 전체적인 대인 관계나 삶의 패턴 변화를 위해 지속적인 상담이 권유됩니다.

4. 우울감과 우울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번아웃 증후군과 우울증의 차이도 궁금합니다.
우울증은 '병' 이고, 우울감과 번아웃 증후군은 '증상' 입니다. 즉, 누구나 우울감을 가질 수 있고, 적절한 휴식 없이 일을 계속하면 번아웃 증후군에 걸립니다. 하지만 병의 일종인 우울증은 원인, 병의 기전, 치료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5.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조력자 증후군이 생긴 것 같아요. 남을 돕는 행위에 익숙해져서 정작 제가 힘들 땐 어디에 도움을 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남을 돕는다고 해서, 내가 도움을 받지 않고 주기만 해야 한다는 논리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도움을 청할 수 있고,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도움을 청하면 저 사람이 과연 나를 도울 수 있을까?', '이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다른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낮가림 현상이 어디에 도움을 구해야 할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닌, 그냥 같이 들어주고, 공감하는 역할만 해 줘도 나에게 큰 힘이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제가 체감하는 우울증의 증상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우울증 자가 진단 테스트에서 만성 우울증이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기분이 우울한 것만 우울증이 아니고, 평소의 기능이 신체적 이상이 없음에도 떨어지거나,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우울증 증상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우울증인 병으로 진행했는지, 아니면 우울감인지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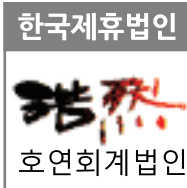
7. 갑작스러운 남편의 우울증으로 가족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제 자신과 아이들을 지키면서 남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남편분이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졌으면 부인은 어떻게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거동할 때 도움을 주고, 주변의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조금씩 도와줄 수 있겠죠? 우울증도 똑같습니다. 심리적 질환이기 때문에 특별한 코멘트와 마술 같은 위로의 말로 남편을 좋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치료는 병원에서, 도움과 위로는 집에서 행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우울증"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휴람 - 성형외과

해외 동포 특별가 성형 패키지



성형 패키지 특별가 이벤트

- | | | | |
|--------------------------|---------------------|----------------|---------------|
| 눈 꺼풀 + 눈 밑 처짐 | 360 만원 | 콧대 + 코끝 | 350 만원 |
| 얼굴 처짐(목 처짐 포함) | 700 만원 | 지방흡입(복부) | 500 만원 |
| 가슴 (보험물에 따라 가격 상이) | 600~1,000 만원 | | |

* 상담 결과에 따라 수술 방법 및 비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 시 이벤트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술 내용에 따라 휴람에서는 숙박 혜택 및 추가 서비스도 제공해드립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무료전화(Call for Free)

☎ 1-844-DO HURAM (1-844-364-8726)

☎ 010-3469-4040 / ID : huramkorea

✉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조정된 상품 가격 (5월 1일부터. 무료영화는 6월부터 편당 1볼로 변경)

*전상품 1년 약정

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

\$24⁹⁹

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종편, YOUTUBE

\$34⁹⁹

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종편, 영화/성인, YOUTUBE

\$39⁹⁹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건강검진 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 휴람건강검진 ◆

시설, 장비, 퀄리티, 검사항목, 서비스, 가격 등 해외동포분들을 위한 '비교우위' 프로그램입니다!!!

** 휴람은 상담-예약-검진진행-사후관리를 보호지역할로서 도와드립니다.
** 지금 상담을 통해 고객 여러분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검진을 결정해 보세요!!



휴람 건강검진 이벤트

◀ 종합검진 기본 항목 ▶

- | | |
|----------------------------------|-----------------------------|
| 1. 이학적검사 (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안압, 혈압) | 7. 체지방검사 |
| 2. 청력검사 (순음청력검사) | 8. 부인과검사 (자궁경부암, 유방특수촬영) |
| 3. 혈액검사 (종합혈액검사 70여가지) | 9. 소화기검사 (위내시경) |
| 4. 암표지자검사 | 10. 복부초음파검사 (간장, 췌장, 복부장기등) |
| 5. 심폐기능검사 (흉부X-RAY, EKG, 노력성폐활량) |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
| 6. 요검사 | |

휴람 당일종합검진

소요시간 : 4시간 : 49만원 ~

- 기본항목 + [남] 흉부(폐)CT, 전립선초음파, 골밀도검사
- 기본항목 + [여] 갑상선초음파, 부인과초음파, 유방초음파, 골밀도검사

휴람 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60만원 ~

- 당일종합검진 + 대장내시경+ 숙박(1인실)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95만원 ~

- 숙박종합검진 + [남] 경동맥초음파, 뇌MRI, 뇌MRA
- 숙박종합검진 + [여] 뇌MRI, 뇌MRA

휴람 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225만원 ~

- 숙박종합검진 + 뇌MRI, 뇌MRA, 심장 CT, 심장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 [남] 갑상선초음파 [여] 폐CT

휴람 V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전 ~ 명일 12시경 퇴원 : 370만원 ~

- VIP종합검진 + PET-CT, 복부조영CT, 호르몬검사, 호모시스테인(중풍, 심혈관질환 인자)

휴람건강검진 네트워크 병원

휴람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중앙대학교병원(동작구 흑석역) / H+양지병원(관악구 신림역)
세란병원(종로구 독립문역) / 강남지인병원(논현동 학동역)
강남병원(용인시 신갈동 기흥역)

※ 프로그램에 따라 픽업서비스, 물품셋트, 죽등을 제공합니다.
※ 상기 검진은 병원에 따라 검진 항목 및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u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HOME RENOVATION
NAMU

나무

- 국제기능올림픽 목재분야금메달리스트
- 대통령 훈장 수훈
- 15년 이상의 경력



WHY NAMU



정직하고
디테일한 견적



고객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진행



체계적 관리를 통한
계약 기한 내 완공

SERVICE

- ☑ 하우스 레노베이션
- ☑ 커스텀 캐비닛, 데스크
- ☑ 원목 테이블, 가구

견적부터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고 양심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무료
견적
상담

🌐 www.namuma.com
 ✉ info@namuma.com
 ☎ 617-775-4771
 📍 58 Pulaski st, Peabody, MA 01960
 📷 @namu_finewood

INSTAGRAM



HAPPY NEW YEAR

근하신년

2022년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스톤 코리아는 새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더욱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 더욱 쉽고 편하게 보스톤코리아를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 더욱 여러분의 목소리를 반영하겠습니다.

HAPPY NEW YEAR